

이화(異化)되는 <일상>으로서의 매스 미디어:

「남아 방치사건」과 「개호 살인 / 동반자살 사건」 NEWS 보도를 둘러싸고

이와모토 미치야

번역: 김현정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사소한 것을 사랑해야만 한다. …(중략)…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 고심해야만 한다.”

(이쿠타가와 류노스케 『난쟁이 어릿광대의 말』 문예춘추사, 1927년)

들어가며: 의문을 가져야 할 과제 <일상>

2016년 5월 말, 홋카이도 산속 도로에 방치되었던 7세 남자아이가 6일 만에 무사히 발견되었음을 전하는 뉴스가 삼시간에 전세계로 퍼졌다. 실종 당시부터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해온 영국 BBC와 한국 YTN 방송은 소년의 무사생환을 속보로 전하였고 미국 CNN 방송도 공식 웹사이트 첫 화면에 “Missing boy found”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또 영국 가디언지와 런던의 석간신문 이브닝 스탠더드 지도 1면 톱 뉴스로 전하면서 “ALIVE!”라는 큰 활자 밑에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아 숲속에 방치되었던 소년, 6일 후에 발견”이라는 요약문을 달아 상세히 보도했다. 또 구미의 주요 매체들이 톱뉴스로 보도했던 것과 비교하여 그 비중은 알 수 없지만, 중동의 알자지라,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에서도 로이터의 배포영상을 보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伏見, 2016).

전 세계 매체가 이 사건에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행방불명이 된 소년의 “기적적”인 생환에 있었지만 이를 기뻐하면서도 특히 구미권의 매체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방치 행위를 “훈육”으로 여기는 일본의 부모-자식 관계에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였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방치 행위가 과연 “훈육”인지, 아니면 학대인지에 관한 의견은 나뉘었지만,¹ 같은 행동을 취한 경험이 있거나 그 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비슷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일본인에게서는 예상 외로 많았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집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는 딸을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어 “딸 안 들으면 여기 두고 간다!”라고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²이 필자 세대라면 몰라도 지금 세대에서까지 여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이 필자에게는 매우 ‘의외’였으며 놀라운 일이었다. 젊은 세대의 부모들에게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경로’가 궁금해졌다.

이 뉴스가 빈번히 전해지게 된 것은 행방불명된 지 이들이 지나 소년의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의심받는 것이 두려워 산나물을 채취하던 중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고 죄책감을 드러내며 고백한 다음부터였다. 훈육(벌)으로 인해 아이가 행방불명되었다고 보도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했음을 드러내며 송구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복되는 뉴스에서는 “오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뉴스 내용 자체가 점점 짧아졌고 소년의 발견은 거의 절망적이라 여겨질 때에 전해진 무사생환 소식은 안도감과 함께 사회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도쿄 도지사의

사임과 같은 빅뉴스가 없었던 틈을 매우듯이 절묘한 시기에 일어났던 점 또한 뉴스로서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였지만, 특히 필자인 내가 ‘의외’로 여기고 문제로서 다루고자 생각하게 된 까닭은 이 사건이 우리 연구회가 핵심어로 삼고 있는 <일상>이라는 개념과 방법을 고민하는 데 매우 알기 쉬운 소재를 제공해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하 이 글에서는 개념과 방법을 뜻하는 경우에는 <일상>, 막연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괄호를 빼고 사용하기로 한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뉴스라고조차 할 수 없는 무심한 일상의 단편적이고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일=出來事^{데키코토}가 사건화된, 즉 일상이 미디어에 의해 사건화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 ‘出來事’란 일본어사전 『大辭泉』에 따르면 “사회나 신변에 일어나는 일들. 혹은 뜻밖에 일어난 사건·사고”를 뜻한다. 전자의 신변비근한 일상다반적 사소한 일로서의 ‘出來事’는 『明鏡』의 용례 해설에 의하면 “‘사건’과 비교하면 일의 크고 작음,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쓰이며 용법도 넓”은 말이다.³ 우리들은 사건화 된 현상으로부터 평소에는 지각하기 힘든 일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디어에 매개된 사건이 애매한 일상을 단편화함으로써 당연한 <일상>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윤곽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을 미디어 NEWS가 제공하고 있다. 재해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잃어버린 일상’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처럼 비상(非常)이 없으면 일상을 지각하기 어렵다.

필자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자살, 친자동반자살, 존속살인 등과 같이 가족을 둘러싸고 종종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건·사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이러한 연구시각은 예를 들어 자살이건 친자동반자살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모순,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이 가장 첨예화된 결과 어디까지나 일상 규범의 연장선의 극한점에서 자살 등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일본에서 마침내 정착하여 자살대책 등에 활용되기 시작했다.⁴ 물론 ‘각오로서의 자살’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자살은 자유의지에 따라 결의가 굳어져 선택된 죽음이 아니라는 정신과 전문의 다카하시 요시토모(高橋祥友)의 주장(高橋, 2012: 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확대와 “훈육”의 경계뿐만 아니라, 일상과 자살이라는 비(일)상의 경계 또한 종이 한 장 차이로 연속되어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테마 『미디어와 일상』과 관련하여 21세기 우리들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필자 외의 다른 연구자들이 다룰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랫동안 미디어를 대표해온 텔레비전과 신문, 매스 미디어 속의 NEWS 보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한다. 매스 미디어 연구 중에서도 정치경제의 미디어 지배에 저항하는 안토니오 네그리 등의 멀티튜드(multitude)(네그리, 하트, 2005),⁵ 피터 달그렌의 공공권 내 미디어 시민성 연구(Dahlgren, 1996)⁶ 등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많지만, 본고에서는 미디어 NEWS와 일상세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 개념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방법을 밝혀보기로 하겠다.

1. 당연한 일상과 ‘잠재민속’: 그 전달의 경로

먼저, 서두에서 언급한 남아 방치사건을 가지고 논점을 도출해보자.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민속학, 문화인류학 연구 중 민족지적 기록뿐만 아니라 방대하게 축적된 산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이들) 내버려두고 가는 행위(置き去り)에 대해 언급한 글은 없다.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제학의 입장에서 일본의 신 중류계급에 대한 논문을 쓴 에즈라 F. 보켈의 연구 정도이다. 1959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도쿄 교외의 M지역에 거주하며 조사를 수행한 보켈은 신 중산계급, 이른바 셀러리맨 가족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문화화의 과정으로서 제12장 『육아』에서 이에 대

한 자세한 서술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본고와 관련된 일부분만을 잠시 소개해 보겠다. M지역의 샐러리맨 가정의 경우, 예를 들어 “의존성을 자녀에게 심어가는 과정은 영유아기 초기에 이미 시작”되는데 “집안에서도 아이는 항상 엄마의 눈에 띄는 곳에 있다. …(중략)… 화로에 부딪히거나 유리문이 달린 마루에서 마당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어느새 아이를 업어 버리거나 업지 못할 때에는 아이를 본인이 있는 곳에 두고 일하게 된다.” 거꾸로 “아이가 엄마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며 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여겨지고 있다”(보겔, 1968: 202~203, 강조점은 필자)고 하며, 미국의 육아 양식과는 대조적인 다음과 같은 광경을 예시로 든다.

“미국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뒤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M지역에서는 그와 반대로 아이가 엄마의 뒤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엄마가 아이의 약간 앞을 뛰어가며 아이가 서두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곳에서는 아이에게 별주기 위해 외출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여기서 쉽게 보게 되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아 자신이 처지른 나쁜 일에 대해 반성할 때까지 안에 들이지 않는 것으로, 큰 소리로 울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다”(보겔, 1968: 204, 강조점은 필자).

외출을 금지하는 미국의 훈육법과 비교해 집 밖으로 내쫓는 방식은 아이를 놔두고 가는 행위나, 혹은 지금도 많이 쓰이는 ‘넌 (이제) 우리 집 애가 아니다’라는 겹주는 말처럼 아이 마음에 깊은 공포를 심어준다. ‘놔두고 간다고 말하며 위협하는 수단은 보겔에 따르면 수학여행 간 학생들에게도 쓰였다고 한다. 여행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 여행지에 홀로 남겨두겠다고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보겔, 1968: 203). 사실 필자조차도 시대착오적인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데, 앞에서 인용한 “혼자 남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내버려두고 가는 행위에 대해 ‘오이테키보리(置いてきぼり)·오이테케보리(置いてけ堀)’라는 명사가 존재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상당히 보편적인 훈육법임을 알 수 있으며 “오이테키보리”를 당한다·당하게 한다; “오이테키보리” 한다 등과 같이 표현된다.

보겔이 M지역의 샐러리맨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은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는 그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방에서 이주해온 제1세대의 이러한 육아 방식이 전통적인 지역사회로부터의 이동을 통해 전달된다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전달’ 경로가 거의 차단된 21세기 현재에 엄마 친구들과 메일 등을 주고 받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얻고 이를 ‘변통’하면서 육아에 힘쓰고 있는 현대의 젊은 부모들(Kelly, 2016)의 적지 않은 수에 의해 자녀를 내버려두고 가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필자는 가장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놔두고 가는 행위에 대한 육아 담론(Childreaning discourse)(天童 편, 2016)⁷이 민속학에서는 어찌서 논의되지 않았는 가라는 사실이다. 이 점에 주목해서 살펴보면 사쿠라다 가쓰노리(櫻田勝徳)가 ‘잠재 민속’이라 칭하면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표현과 습속적인 행위, 즉 육아 담론을 처음으로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쿠라다가 1970년에 펴낸 『바다의 종교』(海の宗教)에서는 가고시마 현 고시키시마 섬 조사에서 1933년에 들은 동일 계통의 표현에 대해, 미야모토 쓰네이치(宮本常一)가 주로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대상으로 쓴 『스오 오시마 섬을 중심으로 한 바다 생활지』(周防大島を中心とした海の生活誌)(アチックミュージ엄, 1936)와 세키 게고(関敬吾)로부터 들은 시마바라 반도의 세 가지 예를 들어 소개하였는데, 이 책이 간행되자마자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많이 이야기해줘 놀랐음을 사쿠라다는 적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앞 책의 간행 8년 후에 발표되어 이후 도시민속학 등 일본민속학의 조류에 큰 영향을 준 『근대화』와 민속학(『近代化』と民俗学)이라는 글도 일부에 적은 사쿠라다는 본인 세대가 행한 민속조사를 다음과 같이 반성적으로 회고하였다.

“쇼와 30년대 이후 생산과 생활양식 …(중략)… 이 격변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민속이 급격히 사라져 잠재화하거나 소멸되어왔다.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민속조사가 점차 활발해진 쇼와 초기 때를 떠올려보면 당시에는 이미 고무바닥을 댄 왜버선 신발이 보급되어 있었지만 짚신도 여전히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중략)… 어디에나 있는 네 고리 짚신 …(중략)… 등은 하나하나 조사해 보지도 않고 지나친 적이 많았다. 다만 두 고리 짚신의 존재를 우연히 깨닫고 …(중략)… 평범하지 않은 사례를 알아차렸을 때에만 주목한 적이 있고 어디서나 똑같다고 여겨지는 듯한 일에 대해서는 대개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그러한 것들의 대부분이 생활 속에서 사라져 …(중략)… 민속 계승의 급격한 약체화를 통감함과 동시에 우리가 특히 주의해온 민속사상은 일상적인 당연한 것이라 해도 너무나 당연한 것은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고 근대 혹은 근세 역사 속에서 덜 당연해지고 있는 것이 민속으로 다뤄지는 때가 되었음을 새삼 통감한다.”(櫻田, 1976: 152, 강조점은 필자)

이렇게 일상의 당연한 것은 자각하기 어려움을 지적한 다음, 사쿠라다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담론에 대해 도쿄, 교토에서 태어난 학생들의 단편적인 사례도 소개하면서 모모타로, 우리코히메 이야기(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영웅의 이상한 탄생 이야기), 우쓰보부네 배 전설, 표착신 유래담과의 관련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적어도 과소가 진행되는 천재일우 속 민속의 추이를 추적해보는 책임을 후대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져야 한다. …(중략)… 특히 낱알이 폐춘 상태에 가까워지는 비상사태에 처음으로 밤하늘에 쏟아져 내린 불꽃처럼 솟아나기 시작한 잠재 민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소 지역에서 노인이 목매 자살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 신문기사 등에 그치지 않는, 정도에 따라서는 그 대처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마음이, 신경통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기에 더욱 강하게 든다.”(櫻田, 1976: 159, 강조점은 필자)고 이야기하였다.

신경통이라는 증상과 함께 말하고 있는 점도 시사적이지만(신경통은 병명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병이 일으키는 증상),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다. 평범한 육아 담론을 ‘잠재 민속’이라 이름 짓고 의식함으로써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논문에 자극을 받은 치바 도쿠지(千葉徳爾)는 1979년에 대학강의 수강생들 202명에게 샘플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워온 아이 혹은 데려온 아이’라고 불린 기억이 있는 사람이 112명, 여기에 형제자매가 그렇게 불린 기억이 있는 사람 55명을 더하면 전체의 약 83%에 이르며, 그렇게 불린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이 32%, 초등학교 저학년이 48%임이 밝혀졌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유아기에 비정상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었을 가능성을 설명해 준다. 치바는 이 현상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하며 ‘주워온 아이’라는 표현이 일본 전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리 밑에서’라는 표현은 맥락을 생각해보면 교량이 여기저기 많아지게 된 메이지 시대 이후, 근대 이후의 것임을 지적하면서 다리 밑이라는 수식어는 오래된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였다(千葉, 1983).⁸

치바가 시사한, 정신적인 충격을 유아기에 준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이 보겔의 관찰 중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대부분의 M지역 부모들은 아버지건 어머니건 내 자식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데 특히 어렸을 때는 모든 응석을 받아주다가 …(중략)… 아이가 5, 6살이 되면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갑자기 엄해진다 …(중략)… 아이가 자라고, 특히 그 아이 밑에 동생이 태어나거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되면 엄격해진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엄격함을 갑자기 보이는 것이 이”니라 “징계를 가하지 않고 … 그 아이가 부모와 협조적인 마음을 보였을 때에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며 “아이가 자동적으로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으로 “부모의 관심은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가르치기 보다는 이해시키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이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엄마는 단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행동을 넘기지 비추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이후에는 “알겠지?”라는 한마디 말을 격려하듯이 덧붙여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보겔, 1968: 213). 이 글 머리말에 인용한 방치사건의 남자아이도 7세

아동인데, 바로 이러한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아이를 내버려두고 가는 행위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과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도 거의 통용된다. 예를 들어 장보는 동안 아이를 차안이나 방에 두는 것도 아동학대죄·방입이라 문책 받는 구미와 달리,⁹ 일본에서는 6~7세 아이가 혼자 전철을 타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광경도 일상적이다. 구미와의 문화적 상이성에 비한다면 아마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것들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2. 미디어 세계를 사는 우리들의 일상

이방인의 눈에만 띄는, 우리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당연한 일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사쿠라다가 지적한 것처럼 일부러 기록되지 않는 일상은 너무도 당연해서 진부하고 사소한 것이다. 진부하고 하찮으며 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민속학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Orvar Löfgren은 민속학을 “사소한 것에 관한 학문”(the discipline of trivial)(Löfgren, 2008: 128)이라고 하였고, 미국의 Dorothy Noyes는 “소소한 이론”(Humble Theory)(Noyes, 2008: 37)라고 재정의하였다. Hermann Bausinger가 “일상적이고 두드러지지 않은 일”에 주목하는 것(alltäglichen unauffälligen Dingen)을 시사하고(Bausinger, 1984: 103),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가 “아무리 작고 세상에서는 하찮다고 여겨지는 것도 무시하지 말고 …(중략)… 그냥 봐서 잘 모르겠는 것은 특히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루는 것”(柳田, 1976: 204)이야말로 민속학의 근본이라 논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 즉 평범한 사람들의 흔하고 사소하며 평범한 생활과 버내쿨러(Vernacular=풍토적·일상소통적)한 실천을 민족지적 관점에서 총체적(holistic)으로 파악하는 학문이 일상학으로서의 민속학이다. ‘민속’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속학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중국어로 번역된 줄기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지만(岩本, 2008b),¹⁰ 어찌서 친자동반자살이 민속학의 대상인지 의구심이 든다면 그건 민속학을 ‘민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속학이라고 대상규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Regina F. Bendix와 Galit Hasan-Rokem이 펴낸 *A Companion to Folklore*에서 Alison Dundes Renteln은 “oyako-shinju, or parent-children suicide”라고 일본어 그대로 표기하여 논하고 있다(Renteln, 2012: 544).

우리의 일상세계는 의식과 견해가 상당 부분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거나 혹은 참조하여 구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으로부터 많은 정보와 거의 대부분의 NEWS를 얻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다. “미디어에 흠뻑 젖은 현실”(Media-saturated reality)(Bird, 2003: 1)을 살고 있는 것이다. 또 앞에서 인용한 영국 가디언 지의 남아방치 사건에 대한 오피니언 란에는 “We need more good news stories, like Yamato Tanooka’s rescue”가 게재되었는데 여기에는 “24시간 뉴스에 사로잡힌 문화 속에서 산다”(living in a 24-hour news-obsessed culture)는 표현이 있다. 이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뉴스의 표현수단은 끔찍하고 기분 나쁘고 타락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독자, 나아가 이익을 늘리려고 한다. 그 결과 생겨나는 것은 세상이 어둡고 답답하고 좋은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뒤뜰린 관점이다. 예전에 한 동료로부터 정신위생상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은 술을 끊고 운동하고 뉴스를 읽지 않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하며 보다 밝은 뉴스를 보도해야 함을 주장하며 끝맺고 있다(Cosslett, 2016).

필자가 중심 테마로 삼아온 친자동반자살은 가장 무겁고 괴로운 주제임에 분명하지만, 이 연구시각은 James M. Carey의 의례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의 창시자인 Carey는 *Media, Myths, and*

Narratives(Carey ed., 1988)와 *Communication As Culture*(1989)에서 종래 미디어 연구의 ‘전달 모델(도구론적 전달론)’에서 ‘의례 모델(수용 이론)’로의 이행을 주도했다. 2006년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타개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뉴스는 정보가 아니라 드라마이자 이야기”이며 커뮤니케이션이란 “정보 공유의 행위가 아니라 공유하는 신념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를 읽고 쓰는 것은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이고 독자 앞에 배열된 것은 순수한 정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서로 투쟁하고 있는 모든 세력의 묘사라고 보는 한편 “커뮤니케이션은 리얼리티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회복되고 변용되는 상징적인 과정”(Carey, 1989: 15~21)이라고 주장했다. Carey 이론의 계승자인 Elizabeth Bird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주목해보자.

“뉴스를 구술로서 고찰하는 것은 뉴스를 외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의해 영향 받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저널리스트 또는 관료적 조직의 소산으로서 고찰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것, 환언하자면 통지, 설명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곳에 뉴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 된다. 구술로서의 뉴스라는 방법은 뉴스가 정보를 알리는 것, 물론 독자가 뉴스로부터 배운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것은 저널리스트가 정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사실,’ ‘이름,’ ‘인물’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그러한 모든 세부사항(의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은 뉴스의 보다 상징적인 시스템에 공헌하고 있다. 사실, 이름, 그러한 상세한 내용은 거의 매일 바뀌지만 이들이 적합하게 맞아들어가는 틀(상징적 시스템)은 보다 영속적이다. 그리고 영속적인 시스템으로서 뉴스의 전체성은 받는 쪽에 그 모든 구성 부분(이러한 부분들이 알리고 화나게 하고 또는 즐겁게 만들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Bird, 1988: 69).

또 Bird에 의하면 뉴스라는 신화적인 <구술>(mythological narrative)은 반복적으로 말해짐으로써 신화나 민속과 같이 독자(민중)에게 문화적 가치의 모델, 즉 선악·호악·미추 등의 정의를 제공한다(Bird, 1988: 70).¹¹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신문기사가 각각 전하는 자살, <친자동반자살>을 둘러싼 ‘독자’가 인식하는 상징적 코드, 문화적인 특정한 ‘이야기의 코드’를 해독하고자 노력해왔다(岩本, 1993; 2006a; 2006b; 2007).

매스미디어와 인류학·민속학의 관계는 미국인류학회에 1969년에 분과회로서 미디어 인류학이 발족하고 1990년에는 Arjun Appadurai가 ‘미디어스케이프’를 정의하였지만(アパデュライ, 2004), 1993년에 D. Spitulnik에 의해 “매스 미디어의 인류학은 아직 없다”고 평가되었고(Bird, 2010: 2),¹² 2002년에도 F. Ginsburg 등이 “오랫동안 매스 미디어는 인류학에서 금기시되는 토픽이었다”(Ginsburg, Abu-Lughod and Larkin, 2002: 3)고 말한 것을 본다면 미디어 인류학으로서 눈에 띄는 발전을 한 것은 영상인류학·민족지영상의 영역¹³에 한정되었다. 매스 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 혹은 문화 연구의 대상영역으로 여겨져 회피되기 십상이었으며 비서구권 이문화의 연속극 등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정도였다.¹⁴ 일본에서는 2004년에 일본문화인류학회의 기관지인 『文化人類学研究』 69권 1호에서 ‘매스 미디어·인류학·이문화표상’이라는 특집을 꾸몄고 모리야마 다쿠미(森山工)의 서론과 하라 도모야키(原知章)의 『미디어 인류학의 영역』 등을 게재했지만,¹⁵ 이후 매스 미디어에 관한 이렇다 할 연구는 없었다.¹⁶ 다만 아프리카 등의 발전도상국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SNS가 현지 생활양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사례 연구는 많이 등장하였다(羽瀬·内藤·岩佐編, 2012). 그러나 여전히 매스 미디어는 영역 침범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구미에서는 매스 미디어 연구를 중심으로 편찬된 Eric W. Rothenbuhler 등의 *Media Anthropology*(Rothenbuhler and Coman, 2005) 등이 간행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3. 매스 미디어 연구와 민속학

위에서 언급한 Elizabeth Bird는 매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온 민속학자이다. 현재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South Florida)의 인류학과 교수인 Bird는 Carey의 의례론을 계승하여 『탐구심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슈퍼마켓 광고지에 대한 문화 연구』(*For Enquiring Minds: A Cultural Study of Supermarket Tabloids*)(Bird, 1992), 『일상생활 속의 청중: 미디어 세계에서의 삶』(*Audience in Everyday Life: Living in a Media World*)(Bird, 2003) 등의 저서 외에도 『뉴스와 저널리즘의 인류학: 전 지구적인 관점』(*The anthropology of news & journalism: global perspectives*)(Bird ed., 2010) 등을 편찬해왔다.¹⁷ 종래 민속학적 미디어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Linda Dégh의 『미국 민속학과 매스 미디어』(*American Folklore and the Mass Media*)(Dégh, 1994)가 유명하지만, 이 연구는 배리언트(variant) 개념을 구사하고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민담(folktale)의 텍스트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반해 Bird는 유체 개념인 청중(audience)이 매스 미디어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소비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청중의 일상세계를 민족지적으로 기술하였다. 텔레비전, 신문은 구식 미디어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기능으로서의 뉴스의 ‘총람성’(總覽性)(橋元, 2011)¹⁸은 청중의 일상세계에 대한 영향과 그 생활세계를 포착함에 있어 텔레비전과 신문을 빼놓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례론이 전개한 연구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잘 알려진 미디어 이벤트론을 주장한 Daniel Dayan과 Elihu Katz의 연구이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집행되는 의례·의식을 미디어 이벤트라 명명하고 특정한 상징을 전달하는 의례 표현의 구성장치이면서 의례를 생산하는 에이전트로 파악했는데, 유명인의 장례식, 결혼, 정치적·종교적 행사, 스포츠 행사와 같은 전 국민·전 세계를 아우르는 역사적인 행사가 바로 그 전형적인 예이다(ダーヤン・カツ, 1996). 이벤트(행사)라는 비일상적인 의례에 특화시켜 논의되지만, 이는 발생하는 일 = ^{대키고토}出來事 = 이벤트(event)에 대한 NEWS 보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 성과를 낳은 이 분야에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 학파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Rothenbuhler는 “텔레비전과 기타 미디어를 특징지을 때 신화적인 것이 그 사회의 주요한 상징체계의 사례라 보여지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를 거쳐 인류학의 신화 개념과도 일치하게 된다”고 논하였다. 인류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뉴스 담론의 공통 부분인 이야기 서술 속에서 신화적인 속성을 식별하는 것, 뉴스 기사와 신화의 교착을 이야기의 인지과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영원한 이야기”(eternal stories)라 불리는 보편적 이야기의 원형(元型)이 리포터나 편집자들에 의해 삽입되고 뉴스 담론에서 “문화적 틀”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미디어 이벤트를 쉽게 이해·변용시켜 매스 미디어가 지니는 의미의 과잉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된다(Rothenbuhler, 1998: 90).

Daniel Dayan과 Elihu Katz 또한 NEWS 보도에서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보 부재의 커뮤니케이션”에 지나지 않았던 미디어 내용이 정치적으로 의례화됨으로써 사람들에게 긴장을 갖게 하여 균형 잡히고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변형된다고 논하면서 “변형될 수 있는 힘이 되는 의식”(transformative ceremonies) 그 자체가 시공간에 경계적(liminal) 중단을 가져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Coman and Rothenbuhler, 2005: 5).¹⁹ 본고 서두에서 언급한 방치사건은 미디어 이벤트는 아니지만, 속보라는 생중계의 형태로 일상이라는 시간을 중단시킨 점(ダーヤン, カッツ, 1996: 18), 아마도 수억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청자·독자들이 방송을 통해 동시에 같은 차극을 접한 상태가 만들어진 점(ダーヤン, カッツ, 1996: 30), 감추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기자회견이 무사발견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의식으로서 기능했다는 점(ダーヤン, カッツ, 1996: 211~212) 등, 미디어 이벤트화된 NEWS 보도의 전형적인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것은

비극을 예감케 하는 플롯에 들어맞는 텍스트가 뒤집어져 마지막에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민담(옛날이 야기)의 일반적인 형식과 흡사하다. 이러한 예측 가능하고 정해진 형식의 구조였다는 점 또한 이 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였다고 할 수 있겠다.

4. 친자동반자살의 문화적 차이와 평준화: 한국과 일본의 신화로서의 NEWS 비교연구

필자가 한일 NEWS 보도를 비교연구하게 된 계기는 일본과 대만의 신문에 나타나는 자살 보도 형태의 차이에 대해 쓴 대만의 문화정신과학자 林憲(Rin Hsien)의 논문을 접한 일이었다(林, 1982: 321~337).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보도되는 자살 사건의 약 절반 정도는 동반자살 혹은 타살을 포함한 동반자살인 데 반해 대만 신문이 전하는 자살의 대부분은 단독자살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진다. 林은 정신과의사로서의 경험과 관찰, 치료에 비추어볼 때 자살자와 정신질환자가 보이는 정신 징후가 닮아 있다고 한다.

대만에서도 모친에 의한 동반자살이 소수이나나 관찰되는데(표1의 중화민국 “여성”과 세로의 “타살·자살”이 교차하는 괄호 안의 6건이 이에 해당), 그 양적인 차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부친에 의한 동반자살이 전혀 없다는 점과 “복수자살” 중 부부동반자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그 당시까지 일본 연구자들의 논의로는, 예를 들어 1975년부터 80년까지 전국의 지방신문을 포함한 신문 기사를 꼼꼼히 모은 이즈카 스스무(飯塚進)의 연구 등이 있는데 이즈카의 유형별 수치(표2)의 경우 모자동반자살이 63.1%를 점하고 있으며(당시 연간 400건 전후의 친자동반자살이 발생한 셈인데 여기에 미수는 포함되지 않았음)(飯塚, 1982),²¹ 이 외 다른 계량적인 조사에서도 모자동반자살은 6~70%에 이르러 압도적 다수라는 점에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친자동반자살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모자동반자살 연구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²² 따라서 모자일체론과 같이 엄마와 자녀의 정신적인 미분화 상태를 논하는 것과 같은 모자동반자살에 중심축을 둔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동반자살이나 일가족자살, 부부동반자살에 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타문화의 관점에 의거한 논의는 매우 참신한 것이었다.

표1 일본과 대만 신문보도를 통해 본 자살 형태의 차이

형태	나라별	일본 (A신문 1975년 10월부터 1년간)				중화민국 (L신문 1969년 1월부터 3년간)			
		남성	여성	합계	건수	남성	여성	합계	건수
단수자살		100	44	144	144	146	144	290	290
복수자살(동반자살) (부부동반자살)		34 (23)	38 (23)	72 (46)	36 (23)	17 (0)	24 (0)	41 (0)	20 (0)
타살·자살(무리동반자살) (친자동반자살)		27 (13)	48 (45)	75 (58)	75 (58)	23 (0)	10 (6)	33 (6)	33 (6)
자살총수		161	130	291	255	186	178	364	343

(전거: 林 憲, 『精神徴候の通文化比較から見た親子心中』, 1982)

표2 일본의 친자동반자살 유형별 건수(1975~80년 전국 신문보도)

연도	유형	부자	모자	일가	기타	합계
소와50(1975)년		70	335	60	21	486
51(1976)		62	295	70	27	454
52(1977)		65	252	66	19	402
53(1978)		75	256	80	13	424
54(1979)		56	241	71	19	387
55(1980)		72	235	61	34	402
합계		400	1,614	408	133	2,555
비율(%)		15.7	63.1	16.0	5.2	100.0

(전거: 飯塚進, 『道連れ自殺, 今昔』, 1982)

친자동반자살 연구는 기수일 경우 용의자 사망으로 인해 범죄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인 통계는 제시되지 않아 그 실태나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다. 기왕의 대부분의 연구는 신문기사가 데이터화되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변사자의 검사해부를 다루는 검찰의무원의 자료와 정신과외사에 의한 미수자 임상자료 또한 이용되었지만, 신문자료에 자료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취하는 방법은 NEWS 보도를 사실 파악을 위해 계량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 표현과 같은 구술(narrative)의 레벨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林은 신문기사를 이용하면서도 풍부한 임상경험을 통해 자살 원인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말하는 일본인 대부분의 표현, 즉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 잘못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와 같은 말을 미리 본인 스스로 하거나 유서에 남긴 점에 주목하였다. 또 자식을 함께 데려가는 것에 대해 “(남겨두면) 불쌍하니까 데려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표명되는 점을 들어 가정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한편에서는 본인 책임이라고 강렬히 느끼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집 문제는 우리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과 외부세계(친척과 타인)와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사회규범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林, 1982: 324, 326).

林에 따르면 일본과 달리 대만에서 보도된 6건의 모자동반자살 모두 그 동기는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이나 남편의 여자관계 및 남편과의 격렬한 말다툼 등에 대한 기사였다. 따라서 모친이 아이를 데리고 자살한 경우 뚜렷한 분노(一氣之下)가 표현되며 남편 내지 시댁 친족에 대한 보복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는 타이베이 자살예방센터에서의 진찰이나 병동에서 접한 환자들의 정신질환 사례 일반에서 확인되는 경향과 일치한다. 이는 비단 친자동반자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상황에서도 대만에서는 모친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심정을 표현하는 일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林, 1982: 325).

1970년 전후의 비교자료이고 글 자체도 거의 4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만의 상황이나 중국 본토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 일본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오해가 없도록 밝혀두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일본인이 다 친자동반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선택지 중 하나인 이러한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채택되는 문화 패턴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선택은 갈등·곤란의 발생에서 선택에 이르는 경로, 즉 요인의 인과 연쇄와 발생 메커니즘을 패턴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피할 수 있는 경로 또한 다수 존재한다. “이상행동은 당해 문화에 준한 정상행동의 특정 측면을 강화 표현한 것과 다름없”(林, 1982: 333)는데, 즉 하나의 경향에 불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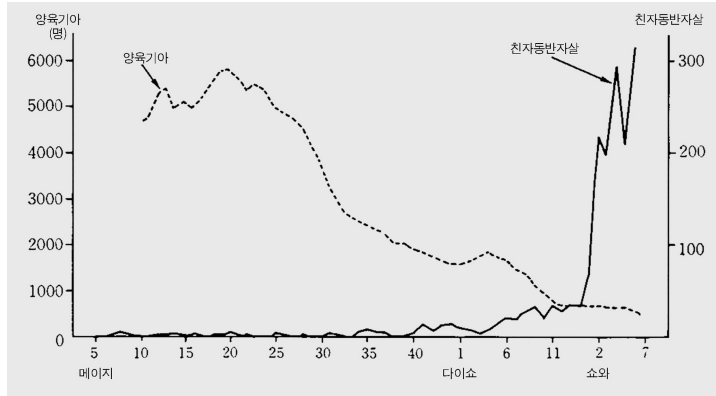


그림1 양육기아와 친자동반자살

(전거: 친자동반자살 수는 小峰茂之, 『小峰研究所紀要』 5, 1937, 양육기아 수는 『日本帝國統計年鑑』 1~53호에서 필자가 작성)

일본에서도 친자동반자살이 행위적 현상²³이 아니라 문화 패턴의 하나(사회적 현상)로서 표면화되는 것은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20년대이며,²⁴ 그 전에는 부모자식이 갈등·곤란에 빠지게 되면 아이를 버렸고 그 아이를 노동력의 대상으로 주워 기르는 상가(商家)나 농가, 선주들이 있었다. 즉 유기나 살해, 또는 부모의 가출이나 자살로 문제는 처리되며 부모의 자살과 자식 살해가 함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친자동반자살이라는 자식살해를 은폐시킨 미명(美名)이 보통명사가 된 것은 1923~4년경이라 여겨지는데(高橋, 1987: 17), 여기에는 독자 또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동정’과 ‘허용’이 숨어 있다. 사회학자 이소무라 에이치(磯村英一)는 ‘영아 살인’이라 하지 않고 미명을 붙이는 저널리즘의 관용 뒤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친에 대한 동정과 이를 못 본 척한 사회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다고 풀이하였다(磯村, 1959: 107~109).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까’라는 부모의 마음은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규범과 표리 관계에 있다. ‘폐’를 뜻하는 일본어 ‘迷惑’²⁵는 본래 갈피를 못 잡고 망설인다는 뜻의 한자어로 이 단어가 일본어에서 ‘다른 사람이 한 일로 인해 불쾌해지거나 곤란해지는 일(모양)’(『大辭林』 三省堂)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나는 고양이이다』(1906년 발표)가 간행된 즈음부터이며(近藤, 邢, 2011: 116~118; 近藤, 2014: 26), 이후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에 내무성 주도로 시작된 민력함양운동에서는 공중도덕으로서 명시적인 준칙으로 다루어졌다(岩本, 2008a). 양육기아(養育棄兒)²⁶의 쇠퇴와 친자동반자살의 급증의 역상관 관계는 분명하다(그림1). 즉, 자신의 자식을 남기고 죽는 것은 사회에 폐를 끼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1972년 중일 국교회복 당시 다나카 가쿠에(田中角榮) 수상은 “중국 국민께 엄청난 폐를 끼친 점에 대해 나는 다시 한 번 깊은 반성의 뜻을 표한다”고 말하였는데, 그 통역에 대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이 “添了麻煩이라는 표현은 중국인의 반감을 부른다”며 엄중히 지적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近藤, 邢, 2008).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규범은 앞의 보겔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타인이 아닌 가족에게만 큼은 폐를 끼쳐도 된다는, 바꾸어 말해, 의존해도 된다(아마에[甘え])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시각에서 1989년에 한국과 비교한 결과(岩本, 1993)가 표3인데, 여기에서는 그 요점만 열거하여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①1989년 9월부터 1년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보도한 자살

건수는 정확히 200건이었으며 이 중 복수자살과 타살·자살(일본에 말하는 동반자살로 추정되는 것)이 63건으로 전체의 약 30% 이상이며 대만과는 달리 ‘복합자살’(이하, 복수자살과 타살·자살을 합쳐서 논할 때는 ‘복합자살’이라 부르겠다. 일본, 한국 모두 ‘집단지살’이라고 하면 타인을 포함한다는 뉘앙스를 띄게 된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②한국에서는 이러한 자살을 ‘동반자살’이라 부르는데, 일본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것은 63건 중 17건이 가족·친족 이외의 사람과의 ‘동반자살’이라는 점이다(표3을 보면 거의 같은 시기 일본의 경우 40건 중 4건). 또 확대가족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5건 있으며(일본은 1건), 친자동반자살이라는 부모자식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한 일본의 복수자살과 비교해 ‘동반자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③63건의 복합자살 중 모자가 15건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부자 5건, 남편+처자(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후 자살) 4건, 확대가족 5건, 부부 8건 등으로 ‘가족’ 즉 부친중심주의적인 경향이 드러난다. ④신문기사에서는 남편의 실직 등으로 곤란에 처해졌을 때에도 정부의 정책 부재와 무능을 공격하는 격앙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명백한 분노의 표현이 서술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 며느리에게 폐를 끼친다고 표현된 사례도 지극히 소수이나 존재한다. 다만 일본처럼 내벌(內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정’을 사고자 하는 서술은 적고 오히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표3 한국과 일본 신문보도를 통해 본 자살 형태의 차이

형태 \ 나라별	일본 (아사히 신문, 1989년 1월부터 1년간)				대한민국 (조선·동아, 1989년 9월부터 1년간)			
	남성	여성	합계	건수	남성	여성	합계	건수
단독자살 (뒤쫓아 죽음)	32 (4)	13 (0)	45 (4)	45 (4)	89 (1)	48 (1)	137 (2)	137 (2)
복수자살(동반자살) (부부동반자살)	16 (11)	18 (11)	34 (22)	17 (11)	32 (8)	27 (8)	59 (16)	25 (8)
타살·자살(무리동반자살) (친자동반자살)	13 (9)	15 (13)	28 (22)	23 (20)	32 (16)	24 (21)	56 (37)	38 (32)
자살총수	61	46	107	85	153	99	252	200

이상은 1993년에 발표한 한일비교 연구논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당시만 해도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했다. 하지만 그 후의 이른바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양국의 복합자살 형태는 평균화되어 가는 측면이 나타났다.²⁷ 1993년 논문에서는 1989년 1년 동안의 자살기사 전반을 분석했으나 2006년 논문에서는 1995년에서 2004년까지의 10년 동안의 복합자살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의 질적 변화의 요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핵가족 단위의 동반자살의 비율적 증가, ②부친중심주의적 규범의 지속과 동요, ③가족(친족) 윤리의 붕괴와 미디어의 새로운 메시지, ④모자동반자살에 대한 시선의 변화, ⑤개인적 병리에서 사회적 병리로의 변화이다(岩本, 2006a).

10년 동안의 가족 내 동반자살을 가족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명확한 변화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전체 가족동반자살 중 부부가 자녀를 함께 데리고 죽는 핵가족형 일가족 동반자살과 부부동반자살이 접하는 비율이 21.7%에서 30.1%, 15.2%에서 26.0%로 각각 증가한 사실이다. 그리고 대조적인 가족형태라 할 수 있는 확대가족 동반자살이 10.9%에서 5.5%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부계적으로 조직화된 친족 범위에서 이른바 핵가족과 그 외 친족관계자 사이에

일종의 경계가 형성되어 가족 / 친족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이家’와 같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 첫 번째 사례로 추측되는 것으로 2003년에는 가장이 69세의 모친을 포함하여 살해한 일가족 동반자살이 기사화되었다.²⁸ 유교적으로 존속살인을 절대악으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였기에(岩本, 2006b) 이 사례는 ②부친중심주의적 규범의 지속과 동요와 연관된다. 유형별로 본 부자동반자살 비율은 현저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일가족 동반자살과 부부동반자살 모두 대개 실질적으로는 아버지=남편 주도이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정에서의 역할-권위 구조 내 부권과 역할 의식이 여전히 공고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²⁹ 하지만 ‘동기’로서 기사화되는 내용에는 질적인 변화가 보인다. 즉 충격적인 격앙형 사례는 자취를 감추고 표현은 동정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담담히 서술되는 한편 그 책임을 가정 내부에서 처리하는 듯한, 즉 자기책임으로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기사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즉, 종래와 같이 부계친족(큰 아버지)을 비롯한 타인에게 의존하는 듯한 삶의 방식은 부정되고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요구되는 자기책임과 같은 새로운 사회규범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도 연관되는 것이 ③의 가족 윤리의 붕괴와 미디어의 새로운 메시지의 제시이다. 과거 신문기사에서는 아내의 자살의 뒤를 잇는 듯한 부자동반자살과 아내 쪽 불륜이 원인이 된 동반자살, 노인자살에 대한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나 독자가 찾고 기대하는 가족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다지 기사화되지 않았다. 그러한 기사를 신는 것만으로도 불륜의 피해자인 남편의 불명이나 부양할 수 없는 자식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암수(暗數)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하였다. 또 199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사건의 서술은 ‘문화적 틀’로서의 유교적인 가정 윤리와 미풍양속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④모자동반자살에 대한 시선의 변화이다. 1997년 이전의 경우 모자동반자살의 ‘동기’나 ‘원인’으로 기사가 추정된 것의 대부분은 ‘일탈’과 ‘비정상’ 또는 사회적 ‘빈곤’의 강조였다. 오늘날에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빠 없는 “결손가정”’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위기 이후에는 같은 생활고라 해도 표준 가정으로부터의 ‘전락’이 문제시되었다. 시선의 더 큰 전환점이 된 것은 2003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에서의 모자동반자살 사건이었다. 7세와 3세의 딸을 14층에서 떨어뜨린 엄마는 5세 아들을 안고 뛰어내렸다. 이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의 제목에는 “엄마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라는 마지막 부탁을 연상케 하는 글이 달렸고, 이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에 대한 속보, 사설·칼럼·독자평 등을 통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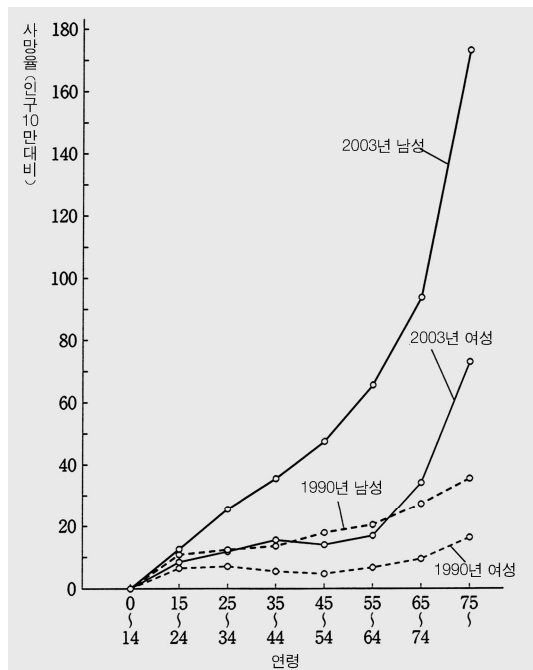


그림2 한국 연령층별 자살율(1990년/2003년)
 (전거: 한국자살예방학회 편, 『우리나라의 자살문제,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전』, 2005)

서 한국사회에 공유된 메시지는 동반자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통화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발하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종래와 같이 경계를 원인으로 들어 설명할 수 없게 되자 한국사회의 바탕이 되어온 문화 그 자체에 비판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부계가족과의 관계성, 가장의 의무감·책임감의 희박화가 현저해짐과 동시에 이 사건 이후 등장한 것은 새로운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였으며 이것이 ⑤개인적 병리에서 사회적 병리로의 인식 전환을 뜻하게 되었다. 자살, 동반자살의 증가를 개인적 원인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사회 병리로 인식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 유효적인 ‘효’에 의해 낮은 비율을 보였던 고령자의 자살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그림2와 같이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사회문제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지금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연장자를 공격하는 유효적인 친족규범을 대체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의 자살률을 비교한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행한 *Society at Glance: Asia/Pacific 2011*에 따르면.³⁰ 그림3과 같이 중국 또한 연령층별 자살률에서 고령자가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보다 중장년층 자살이 더 비율이 높는데 이는 사회적 모순에 따른 파장이 중장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도 그 전에는 고령자의 자살률이 높았다(그림5). 이러한 고령자 자살률의 감소 원인은 제도적으로 고령자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부모자식 사이에서도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규범의식이 확장된 결과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신문 광고에는 ‘자식과 가족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건강식품 광고 문구가 넘쳐나며 자식과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 독거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도 ‘허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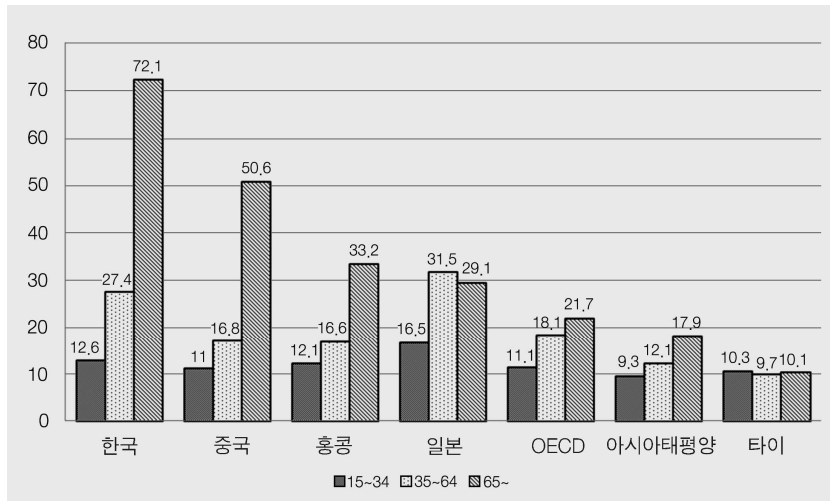


그림3 2011년 고령자 자살률의 국제비교(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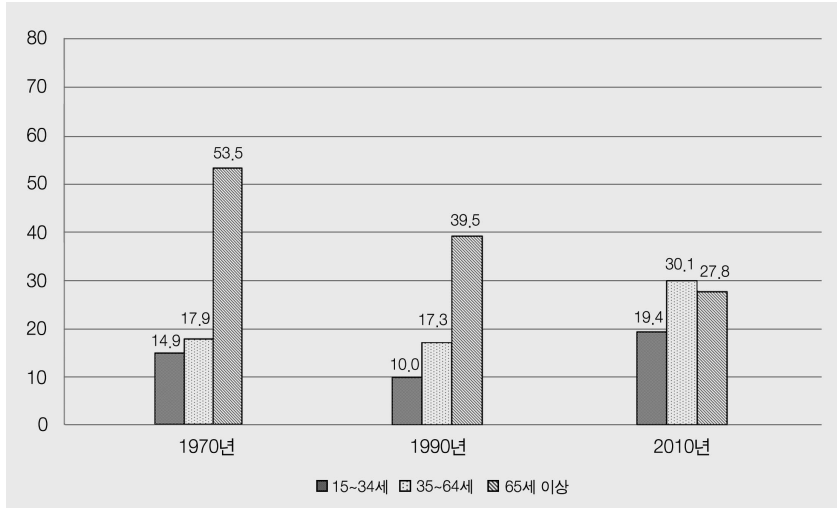


그림4 일본의 연령계급별 자살률의 추이(1970/1990/2010)
(전거: 厚生労働省, 『人口動態統計』에서 필자가 작성)

5. 고령화 사회의 도래: 노노개호(老老介護)와 개호동반자살 / 개호살인

한일 자살형태의 비교(표3)에서 1989년 1년 동안 일본에서 보도된 자살 수는 85건이었다고 했는데, 이 해에 아사히 신문에 게재된 자살·동반자살에 관한 기사 자체는 119건이었다. 같은 사건이 속보(続報)의 형태로 복수 게재된 것을 1건으로 치고 또 외국에서의 외국인 자살사건 10건을 제외한 수가 85건이다. 10건이 해외 자살보도라는 사실은 신문보도의 글로벌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해 조선일보·동아일보(당시 동아일보는 석간지)의 1년 동안의 게재 수는 200건으로, 이에 비해 일본의 자살보도는 상당히 적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이 대만과의 비교에 사용한 것은 1975년 255건이었는데, 아사히 신문에서 그 10년 전, 20년 전의 보도 수를 확인해 본 결과 1979년 255건, 1969년 203건이었다. 즉 자살보도가 급격히 준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또 지금은 일반인의 자살에 대해서는 전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게재되지 않고 있으며, 게재되는 것은 스캔들 성향의 동반자살 뿐이라는 점은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자살에 관한 일본의 공식통계수치의 하나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10만 명 당 수치인 자살률은 1989년뿐만 아니라 1969년, 1979년에도 18명 전후로 움직이고 있으며 큰 변화는 없다.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14년 연속해서 자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는데(자살률은 25명 전후의 추이), 또 다른 공식통계인 경찰청의 자살통계원표를 집계한 결과인 ‘자살통계’가 공표되는 시기에 매년 이 수치 자체가 신문의 기삿거리가 되고 있다. 개별적인 자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단독자살의 경우 유명인의 자살만이 기사화된다. 자살은 제한된 지면의 세력다툼의 결과 그 ‘총람성’에서 ‘사건’으로 취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문기사를 데이터로서 수집·사용하는 방법론은 무엇을 화제(기삿거리)로 삼아 어떻게 사건화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술(구술)되는가를 문제 삼는 내러티브 방법론이 유효하지만, 양적 분석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구글 알리미에 ‘동반자살’을 등록하고 2006년 9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자료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최근 어느 하루 동안의 구글 알리미 ‘동반자살’ 수신 내용을 예

시해 보겠다(참고자료1, 2016년 6월 15일 수신). 여섯 항목에 중복이 있고 세 종류의 동반자살이 다 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①, ②, ④, ⑤는 동거하는 50대 자매가 말다툼 끝에 언니가 부엌칼로 여동생과 80대 노모를 찌르고 자신도 찔렸는데 여동생만 사망하였다. ③은 바닷속에서 51세 무직 남성과 6세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두 사람 모두 눈에 띄는 외상은 없고 남자아이가 사는 전처의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차에 탄 상태로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⑥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도네가와 동반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인데 그 재판의 판결과 사건의 핵심을 추적한 긴 리포트이다. 치매와 파킨슨 병을 앓던 84세 노모가 있으며 신문배달로 가정을 지탱해온 74세 아버지도 병으로 쓰러지자 생활보호를 신청한 동거 중이었던 셋째 딸이 경차에 탄 채로 도네가와 강에 뛰어들어 양친을 익사시켰다. 딸 혼자 살아남아 살인과 자살방조죄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지방재판소는 23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음을 보도하는 전날 기사에 대한 후속기사이다.

경추압박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탈 수 없게 된 신문배달원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어 결국엔 혼자 걸을 수조차 없게 되자 47세 셋째 딸에게 “같이 죽어주겠냐”고 말을 꺼냈다. “엄마만 남겨두면 불쌍하니까 셋이서 같이 죽자”는 아버지의 말에 생활보호 수급에 대해 시청에 알아보던 딸도 바로 “좋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생활보호 수급심사를 위해 집을 방문한 시청직원이 가족의 내력에 대해 물어보자 그들의 처지를 돌아켜보고 “비참해졌다”는 딸의 고백을 통해 생활보호를 위한 수속과정이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활보호에 강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제목이 된 것은 “죽을 것 같다”고 하며 손발을 버둥거리는 엄마에게 “죄송해요”라고 반복하던 딸의 말이었다. 그녀는 재판에서 “그래도 아버지를 증언대에 세우지 않아 다행이다. 그 이상 잔혹한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하며 오열했다고 전해진다. 8년 구형에 대해 판결은 변호측이 주장한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마지막에 ‘사이좋게 지내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주길 바란다’는 배심원들의 메시지를 전하자 피고는 몇 번씩 고개를 끄덕거리며 “고맙습니다”라며 깊이 감사해했다고 전해진다(産経ニュース, 2016).

이처럼 ‘개호’³²에 지쳐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개호살인’ 혹은 ‘개호동반자살’이라고 불리며 초고령사회가 도래한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풀기 어렵고 가장 무거운 사회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개호와 직면하고 있는 557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 일본에서 특히 개호하는 사람도 고령자인 ‘노노개호’ 현상이 진행³³되면서 개호살인 혹은 개호동반자살은 내게도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절실한 문제가 되어 2013년부터 다시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필자가 구글 알리미에 동반자살을 등록한 2006년에도 개호살인·개호동반자살은 빈출했지만, 일단 보도가 진정된 후 다시 늘어난 것은 2013년부터였다.³⁴

개호살인·동반자살 또한 행위 레벨의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시대에서나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 레벨의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다케가와 쇼고(武川正吾)가 고령자 개호는 “1980 년대에 출현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문제”이며 “가족 스스로 개호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했다는 것은 일종의 신화”(武川, 2000: 35)라고 지적하며 라이프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개호기라는 단계는 일본인의 평균 수명의 장수화를 그 맥락으로 하여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1973년에 이미 ‘노병 동반자살’(老病心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신문자료를 이용한 간호학자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清水, 1973), 출현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 이전에 고령의 부모의 부양문제는 있었다 해도 개호문제라 칭하는 듯한 사회문제는 없었고 따라서 개호살인·개호동반자살(이라는 카테고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가족을 죽였다: 개호살인 당사자들의 고백』이라는 충격적인 제목과 내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NHK스페셜이 2016년 7월 3일에 방송되었다. NHK 단독 조사를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년 동안 미수 및 상해치사를 포함한 개호살인은 적어도 138건 일어났는데 이는 약 2주에

1건의 비율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재판자료 등을 기초로 실제 상황이 판명된 77건 중 반 수 이상인 53%가 개호를 시작한지 3년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혔다(1년 이내가 26%). 특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은 살인 당사자 100명 이상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당사자 11명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내레이션의 일부를 영상과 함께 방송한 점이다. 어쩌서 선을 넘고 말았는가? 42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아내를 살해한 71세 남편은 아내가 골다공증으로 골절한 후 퇴원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행훈련을 도왔으며 일시적으로 아내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3개월 후 다시 골절한 다음부터는 외병 상태가 되어 배변도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개호 5개월째 대변이 샌 아내에게서 점차 웃음은 사라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개호인가? 그렇다고 믿으며 열심히 간호했지만 아내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간병을 시작한지 10개월째 되던 때부터 아내가 ‘죽고 싶다...죽여 달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자 절망에 빠진 남편도 점차 거기에 빠져들었다. 한 달 동안 울면서 죽고 싶다고 호소하던 아내가 사건 3일 전날 ‘사는 게 괴롭다’고 말하자 한계를 느끼고 ‘알았다. 우리 주변을 정리하자’고 대답하게 되었다. 재판기록으로부터 인용된 부부의 마지막 대화는 “정말 괜찮지? 후회 안 하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응 확실하게 죽여줘.” 이렇게 해서 간호를 시작한 지 11개월째 되던 남편은 선을 넘고 말았다. 두 사람은 2년 전까지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누구나 갑작스레 간호를 떠안게 될 수 있는 시대, 이 부부와 우리를 구별 짓는 선은 과연 있는 것일까?’라고 프로그램은 질문을 던진다.³⁵

또 다른 사례에서는 60년을 함께 지내온 잉꼬부부를 다루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의 오연성 폐렴을 걱정하는 아내는 식후 바로 눕는 남편의 태도와 의사의 지시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자주 싸우게 되었고 매섭게 대하게 되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둘 수 없다고 말하자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한다. 한심하다.”고 일기에는 적혀 있다. 남편을 휠체어에 묶는 등 간호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을까라며 자책하게 된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된 일상, 하루 종일 간호에 시간을 쏟자 자유시간을 가질 수 없는 일상 등이 그러했다.³⁶ 어쩌서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간호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우리와 연속해 있음을 담담히 전한다.

가토 에쓰고(加藤悦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의 6년간 사례 수는 198건인데(加藤, 2005: 43~44),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서두에서의 “지금 간호에 지쳐 가족에게 손을 대는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표현은 그러한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 1990년대부터 예방을 목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개호보험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인 조치도 취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다. 매스 미디어는 현재상황의 악화를 강조하고 예전에는 건전했다는 환상을 잘못 심어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일쑤다. 담담히 묘사되고는 있으나 먼저 소개했던 사례의 경우, 그 구성을 보면 마치 아내가 ‘같이 죽자’고 말하여 동반자살을 의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시청자는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어쩌서 혼자 죽으려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을 키우게 되고 납득되지 않는다. 집에서 간호하는 사람의 7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개호살인 가해자의 약 70%가 남성이라는 실태(羽根, 2006: 30; 湯原, 2016: 13)와 간호에 지친 남성 간호자는 자신만의 자살이나 포기가 아니라 연루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長尾·川崎, 2013),³⁷ 또 동반자살에서 가해가 미수로 그치는 경우가 60% 이상이라는 점(山中, 2004: 39)³⁸ 등 개호살인·개호동반자살의 문제점은 많이 지적할 수 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적절한 즐거리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고백과 영상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문제점을 깊이 파헤치지 못하였고³⁹ 선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당사자의 고백이라는 심연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서정적이고 다소 답답한 전개와 결론이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개호살인·개호동반자살에 관하여 1945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아사히 신문 기사

를 검색한 하네 아이(羽根文)는 1971년까지 검색어에 부합하고 선택기준을 충족시키는 보도는 없었으며 72년에 처음으로 1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보도 수는 5건 이하에 머물렀고 90년대 말부터 20건 전후로 급증하였음을 알아냈다(羽根, 2006: 29~30). 다케다 코코(武田京子)가 논픽션 『할머니는 어째서 가족에게 살해당했는가』를 저술한 것은 1994년인데, 전국의 지방신문을 포함하여 1992년도에 일어난 가족에 의한 개호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 17건(가해자가 남편인 경우 7건, 아들 7건, 딸 2건, 며느리 1건), 남성이 3건(가해자가 아내인 경우 2건, 아들 1건)으로 그 실태가 제목에 잘 드러나 있다(武田, 1994). 앞서 설명한 친자동반자살의 60~70%가 모자동반자살인 점과는 대조적인 성별 비율이다. 개호동반자살도 일종의 친자동반자살 내지 가족 내 살인이라고 한다면 둘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필자가 지금까지 연구대상으로 삼아온 친자동반자살은 비교적 젊은 세대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인 후에 자살하는 행위이며 지금도 모자동반자살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18세 이하 미성년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65세 혹은 60세 이상의 개호동반자살자를 대상으로도 신문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전자는 아동 학대와 아동 복지 연구 관련이며 후자는 고령자 복지와 고령자 학대라는 맥락에 의거하므로 각각의 관심은 크게 둘로 나뉘어 부부동반자살과 일가족동반자살은 그 사이에서 연구시각으로부터 누락되게 된다. 구글 알리미(참고자료1)를 이용하여 언제나 양쪽을 동시에 열람하는 필자가 판단해 보기에 현재 양쪽 모두를 관련시켜서 논의하는 연구는 없으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친자동반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친자동반자살이라는 범주를 사용한 도쿄도 검찰의무원의 검안 자료가 유일한데(越永・高橋, 1985), 1946년에서 84년 사이에 친자동반자살 중 8.6%라는 비율과 동기별로 보면 절벽과 장애가 64.9%를 차지한다고 제시되었을 뿐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표4 공식통계로 본 타살 / 아동학대사 / 개호살인 등의 수치 일람

	㉠ 타살 (사인별 사람수)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건수 (사람수)	㉢ 동반자살로 인한 사망아동수 (사람수)	㉣ 고령자학대에 의한 사망건수 (사람수)	㉤ 개호 피로로 인한 살인(사람수)	㉥ 개호 피로로 인한 상해치사 (사람수)
2002년	730					
2003년	705	24(25)				
2004년	655	48(50)	5(8)			
2005년	600	51(56)	19(30)			
2006년	580	52(61)	48(65)	31(32)		
2007년	516	73(78)	42(64)	27(27)	30	2
2008년	546	64(67)	43(61)	24(24)	48	5
2009년	479	47(49)	30(39)	31(32)	52	0
2010년	437	45(51)	37(47)	21(21)	57	1
2011년	415	56(58)	29(41)	21(21)	54	5
2012년	383	49(51)	29(39)	26(27)	40	3
2013년	342	36(36)	27(33)	21(21)	50	2
2014년	357			25(25)	42	0

(전자: ㉠란은 厚生労働省, 『人口動態統計』『死因簡単分類別にみた性別死亡者数・死亡率(総数)』, ㉡란은 후생노동성과 아동학대 등 요보호사례 검증에 관한 전문위원회가 펴낸 『子ども虐待による死亡事例等の検証 について』 제1·11차 보고 『虐待による死亡』 항목, ㉢란은 상동 『心中による死亡の児童』 항목, ㉣란은 厚生労働省, 『高齢者虐待防止法』에 기초한 『虐待等による死亡例』 항목, ㉤란은 警察庁 『犯罪統計』(『平成19~26年の犯罪』), 『罪種別主たる被疑者の犯行の動機・原因別検挙件数』 내 『殺人』 중 『介護・看護疲れ』 항목, ㉥란은 상동 『傷害致死』 내 『介護・看病疲れ』 항목, 단, ㉣ 수치에는 동반자살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 수치에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자나 난병 등도 포함된다.)

192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연간 300~400건 발생하던 친자동반자살(그림1·표2)은 현재 당시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와사키 후미히코(川崎二三彦)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의 연간 발생 건수는 30~50건 사이에 머물고 있다(川崎·松本, 2013).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통칭 ‘아동학대방지법’)이 2000년에 시행되자 후생노동성은 2003년부터 사회보장심의회 아동부문·아동학대 등 요보호사례의 검증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검증수치를 공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의 각 시정촌(市町村)은 아동학대 대응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는 ‘학대 등에 의한 사망 사례’라는 항목이 만들어져 시정촌이 그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의 수를 집계한 것이다. 다만 1·2차 보고에서는 친자동반자살을 학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지 보고된 수는 적었다. 표4의 ㉔란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와 사람 수, ㉕란에는 동반자살로 죽은 아동(학대)의 사망 건수와 사람 수를 기재하였다(厚生労働省·社会保障審議会児童部門·児童虐待等要保護事例の検証に関する専門委員会, 2015). 또 2006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학대 방지, 고령자 양호자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학대방지법)에 의거하여 마찬가지로 ‘학대 등에 의한 사망 사례’라는 항목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졌다. ㉔란에 그 수치를 기재하였는데, 여기에는 가해자도 사망한 동반자살 사건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듯싶다(厚生労働省, 2015; 2016).⁴⁰ 이러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은 『헤세19년 범죄』 이후부터 범죄통계서 내 『범죄 종류별 주요 피의자 범행 동기·원인별 검거 건수』에 ‘개호·간호로 인한 피로’라는 항목을 신설했다.⁴¹ 그로 인한 살인 건수를 ㉔란에, 상해치사 건수를 ㉕란에 정리했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㉔보다 ㉕의 수치가 낮다. ㉕에는 장애인, 만성질환·난병 등 개호로 인한 피로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경찰이 유서나 진술로부터 그 원인을 개호로 인한 피로로 인정한 경우만 해당되며 또 ‘온당한 처리’를 원하는 유족의 의향에 따라 사건화되지 않는 등의 압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적게 공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6. ‘가족 내 살인의 증가’라는 담론: 체감 불안과 미디어 리얼리티

표4의 ㉔ 타살(사인별) 란에는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의 ‘사인 간단분류 별로 본 사망자 수’에서 ‘타살’의 수치를 옮겨 썼다. 예를 들어 심부전을 병명(原사인)으로 다루지 않고 사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회 동향 또한 고려하면 이 수치가 전체를 부감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899(메이지32)년에 사망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계속되어온 기초 데이터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수치를 넘어서는 친자동반자살이나 개호살인 / 동반자살의 피살자는 있을 수 없다. 단, 개호동반자살은 가스 중독, 약·독극물, 투신, 익사의 경우, 함께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자살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학대사에 관해서는 최근 일본소아과학회가 2011년 소아사망 사례에 대해 4지역에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고 학대가능성사(虐待可能性死)를 검증한 결과를 공표하였다. 조사지 내 15세 미만의 소아사망사례 중 학대 가능성이 중 정도 이상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전체의 7.3%, 가능성이 높은 ‘高학대가능성死’로 판단되는 사례는 3.0%였다. ‘고학대가능성사’의 경우 영유아 흔들림 증후군, 과실성이 높은 감독방임에 의한 질식·익수, 被殴打児 증후군,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하는 의료방임과 자택분만 후의 사망이 포함된다. 인구동태통계의 소아사망수는 연간 약 5,000명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단순계산할 수 있는데, 이 중 학대사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AI(Autopsy Imaging = 사망시 화상진단)와 해부의 필요가 있는 사례는 매년 350명 정도 있으며 표4 중 ㉔+㉕의 약 3.5배로 추정된다. 후생노동성 집계는 매년 90명 정도의 추이를 보이는데 고학대가능성사는 매년 150명 정도 발

생하고 있으며 약 40%는 수면 밑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溝口・滝沢, 2016: 668).⁴²

고령자에 대한 개호살인 / 동반자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혹은 이 이상의 암수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논의를 진행하겠으나, 이 둘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후술하기로 한다. 표4의 각종 수치는 가족환경·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와 파악될 필요성이 생겨났다. 과거에는 친자동반자살을 학대의 범주에서 다루는 연구자는 없었지만 요즘의 친자동반자살 형태는 학대의 연장임을 연상시키는 미디어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표4의 수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와 관련되는 뉴스에 대한 독자의 수용과 리얼리티에 대해(Bird, 2010: 12) 종종 이야기되는 ‘가족 내 살인의 증가’라는 담론과의 연관성도 고려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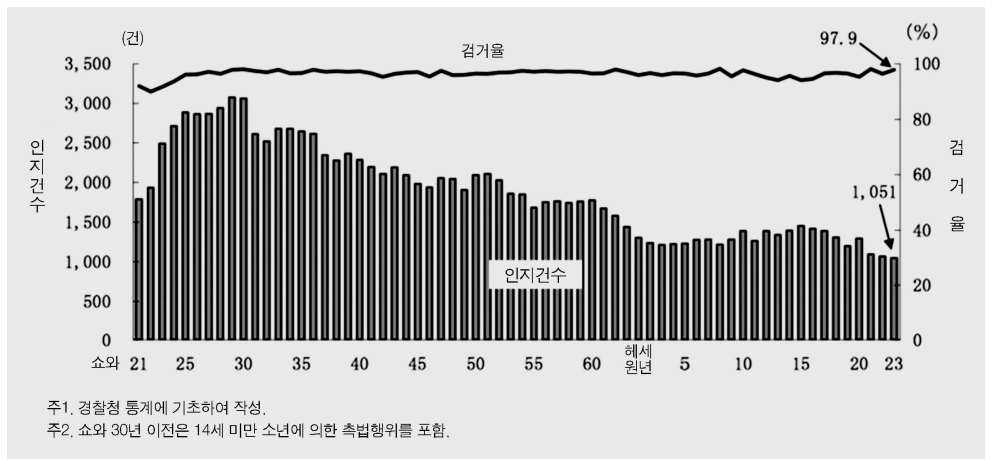


그림5 살인 인자건수·검거율의 추이(1946~2011년) (전거: 法務総合研究所, 『無差別殺傷犯に関する研究』, 2013)

일본의 연간 전체 사망자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이상사’(異狀死)는 경찰 및 검찰의 검시관이 제삼자의 관여 여부, 위장 여부 등에 대한 외포 조사를 실시하여 촉탁의 등에 의한 ‘사체검안서’의 작성성이 이루어진다. 또 의혹이 있어 상세한 사인 규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쿄 23구, 오사카 시, 고베 시에서는 감찰의가, 그 외의 지역에서는 대학의 법의학교실에서 해부하게 된다. 일본의 이상사에 대한 해부율은 2015년 현재 12.4%이다(捜査第一課, 2016).⁴³ 잠재된 범죄나 사고사 존재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수치는 같은 국가 내 경년 변화의 경향을 볼 수 있는 허용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암수를 포함하여 사회배경이 다른 국제비교는 곤란함), 다음의 범무성 범무중합연구소가 실시한 살인사건의 경향에 관한 분석은 참고할 만하다.

그림5은 전후 『살인 인자건수·검거율의 추이』이다. 살인죄의 인자 건수이기 때문에 살인 미수도 포함되므로(法務総合研究所, 2013: 6), 표4의 ㉠와는 달리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했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 그림6은 『살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검거건수·면식율·친족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⁴⁴ 친족율이란 살인에서 친족(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것이 50%를 넘어섰다는 점이 미디어에 의해 종종 ‘가족 살인이 늘어났다’고 표현되는 근거가 된다.⁴⁵ 그러나 전후 195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여 약 3분의 1정도로 살인이 대폭 감소하는 경향에 있으며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를 보면 타살로 죽는 사람은 1일 1명 이하가 되었다(그림5). 즉 살인 자체가 격감⁴⁶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가족 내 살인의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에서는 자녀살해, 부모살해(존속살인)가 증가했다는 식의 표현을 써서 마치 가족이 붕괴된 것과 같은 지나친 보도를 한다. 그림7 「영아살인·존속살인 인지건수 추이」를 보면 금감하고는 있으나 증가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미디어 보도로 인해 시청자는 과거에 비해 살인 등 치안이 악화되고 흉악 범죄가 늘어났다는 리얼리티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체감 불안’이라고 불리는데, 매스 미디어를 매개로 한 리얼리티는 예를 들어 2009년 ‘재판원’(배심원) 제도를 도입한 후 엄벌화의 경향(이른바 양형기준) 등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Bird, 20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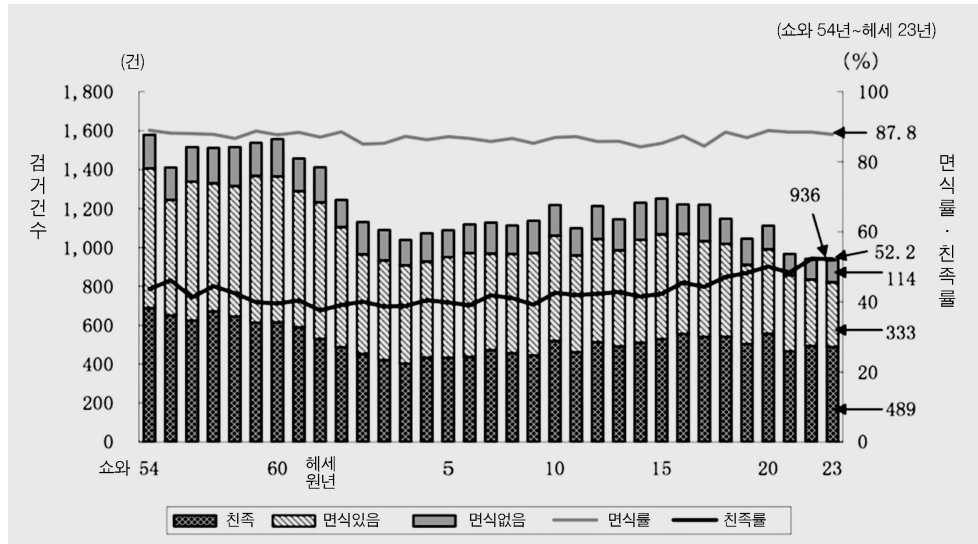


그림6 살인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별 검거 건수 · 면식률 · 친족률의 추이 (전자: 法務綜合研究所, 앞의 책)

법무종합연구소가 간행한 책자에 수록된 「혜세22년판 범죄백서 특별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표5 살인의 「주요 동기 · 피해자와의 관계별 사람 수」를 보면 친족 간 살인의 동기로 ‘개호 · 양육 피로’가 71명 중 19명이다. 동반자살을 기도한 5명도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친족 간 살인의 약 3분의 1이 ‘개호 · 양육 피로’로 인해 일어났다. 또 ‘학대 · 괴롭힘’은 2명인데(法務綜合研究所, 2013: 9), 선행연구가 친자동반자살과 개호동반자살을 ‘학대’의 연장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분만 · 격정’ 또한 일상적으로는 가까웠기 때문에 갑자기 육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⁴⁷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고학대가능성’이 일상적인 학대와 폭력의 연장으로부터 파악되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상적인 학대와 연속한 개호살인 / 동반자살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헌신적인 간호를 계속하고 일상적으로는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羽根, 2006: 37; 湯原, 2011: 45). 자기희생적인 간호를 하던 끝에 피로와 절망감으로 인해 미래를 비관하고 동반자살에 이르는 실태가 부각됨으로써 애정이라는 명목 하의 지배라는 “애정담긴 폭력”에 의한 살인 등과 같이 평가되는 것이다(加藤, 2005: 11~14).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년 동안의 개호살인 / 동반자살 기사를 분석한 야마나카 미유키(山中美由紀)에 의하면 그 동기는 두 가지, 즉 가해자 측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기중심적인 이유에 의한 것과 가해자의 심정이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 ‘간호에 지

쳤다.’ ‘남겨둔 채 나 혼자만 죽을 수는 없다.’ ‘(피해자의) 병이 고통스러워서,’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언제까지 간호를 계속할 수 있을까?’와 같은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불안감이 계기가 된다. 이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전자는 134건 중 7건뿐이었다고 한다(山中, 2004: 39). 적어도 보도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하다.

일상적인 폭력과 방임(neglect)에 의한 일반적인 ‘학대’와 친자동반자살과 개호동반자살은 현상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그 성격이나 질이 다르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거기에는 학대의 연장으로서 살해에 자살을 더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애매한 일상어인 친자동반자살과 개호동반자살의 정의를 엄밀히 하기 위해 전자의 경우 피해자를 18세 미만, 후자는 65세 이상으로 상정하는 것이 통례화되어 있다. 과학으로서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림7 영아살해·존속살해 인지 건수의 추이
(전거: 湯沢雅彦, 『データで読む家族問題』, 日本放送出版協会, 2003)

표5 주요 동기·피해자와의 관계별 사람 수

구분		총수	주요 피해자와의 관계			
			친족	면식있음	면식없음	미상
주요 동기	분만·격정	100	23	61	14	2
	보복·원한	27	8	19	-	-
	치정·이성관계 문제	22	5	17	-	-
	이유 목적	8	1	5	2	-
	폭력단의 세력다툼 등	24	-	18	4	2
	검거도피·입막음	6	-	2	4	-
	개호·양육 피로	19	19	-	-	-
	동반자살 기도	5	5	-	-	-
	학대·괴롭힘	3	2	1	-	-
	피해자의 폭력 등에 대항	11	3	8	-	-
기타	13	5	6	2	-	
총수		238	71	137	26	4

(전거: 法務総合研究所, 앞의 책) 주1. 법무종합연구소 조사에 의한 자료.

7. 연소(年少)형에서 노년형으로: 친자동반자살의 고령화와 평준화

그림8은 필자가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로부터 최근 2010~14년의 5년 사이의 사인별 ‘타살’을

연령층에 따라 그래프화한 것이다. 상기한 ㉠을 안정적인 경향을 도출하기 위해 5년간 가산한 수치이다. 친자동반자살은 피해자가 0세에서 4세의 영유아에게 많이 일어난다(영유아층은 연령별로 다시 기재). 인구동태통계의 ‘타살’은 가해자가 반드시 친족이라 할 수 없지만, 친족일 가능성은 50% 전후의 추이를 보인다. 실제로 이 자료 외에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타살’의 피해자는 60~64세가 가장 많아 고령자층 피해자가 다수라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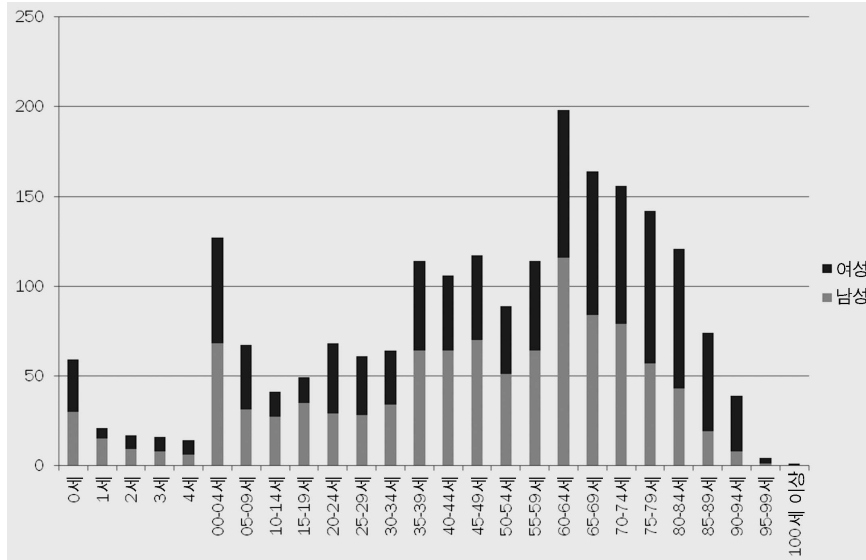


그림8 타살에 의한 사망자 수(2010~2014년) (전거: 厚生労働省, 『人口動態統計』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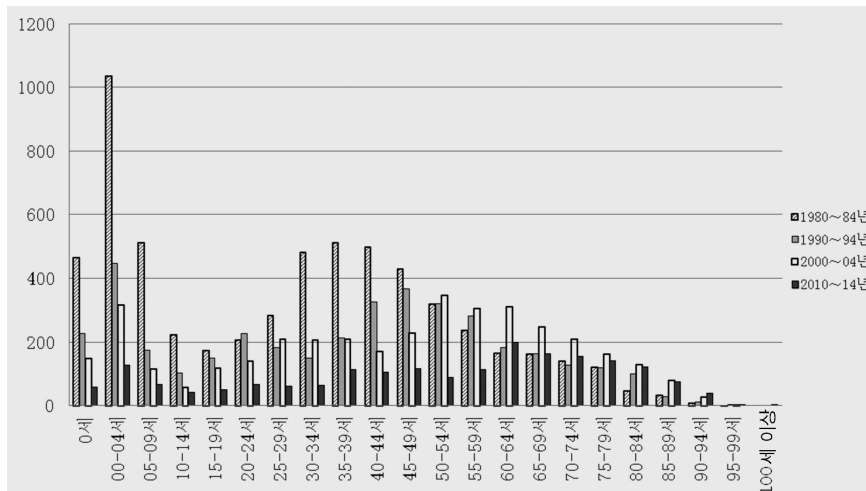


그림9 타살에 의한 연령층별 사망자수 추이(1980년대/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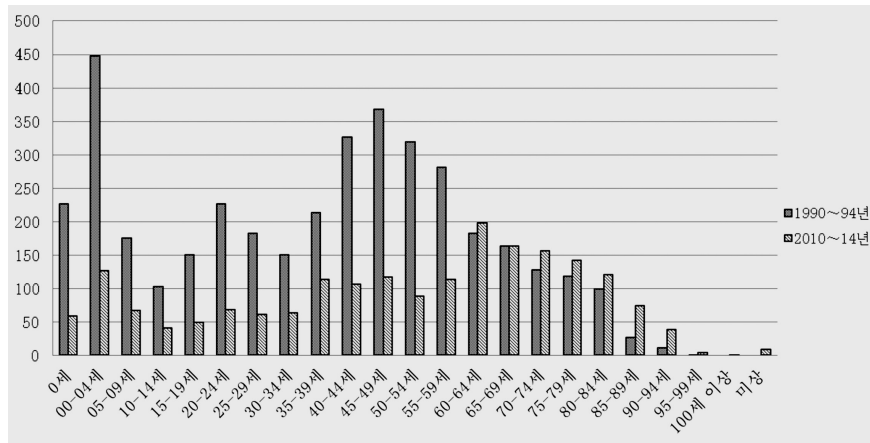


그림 10 친자동반자살은 연소형에서 노년형으로 (1990년대/2010년대)

(원거: 厚生労働省, 『人口動態統計』에서 작성)

여기에 10년 전인 2000~04년, 20년 전인 1990~94년, 30년 전인 1980~84년의 연령층을 더한 것이 그림9이고 보기 쉬운 1990년대와 2010년대만 비교한 것이 그림10이다. 연소형 친자동반자살이 감소하는 한편 개호동반자살=노년형 친자동반자살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연소형 친자동반자살을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동일시하는 논문 동향에는 납득이 가질 않는데, 여기서 참고자료1에서 소개한 세 가지 ‘동반자살’을 다시 한 번 예로 들어보자. 하나는 동거하는 50대 여동생과 모친을 찌른 사건으로 충동적인 ‘분만·격정’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바닷속에 차로 돌진한 부자의 사례인데, 이혼한 아내에게 아들을 데려다주는 도중에 일으킨 범행이었다. 흥기를 쓴 것이 아니므로 ‘평온한 죽음’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는 이혼한 아내에 대한 보복심과 아들을 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부부의 이혼을 계기로 친권이나 자식과의 이별을 둘러싼 갈등을 다루는 보도도 현저해졌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013년 12월 연말에 “초등학교에서 아들에게 불, 중태 / 별거 중인 아버지, 자살을 꾀했다? 사망”이라는 큰 제목이 달린 기사였다. 이혼 조정 중인 49세 아빠가 따로 생활하고 있던 차남 9세를 연루시켜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이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자는 1990년 전후의 논문에서 대만이나 한국에 이러한 격양형 복합자살(동반자살)이 발생한다는 문화적 차이를 논했다. 그러나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현실⁴⁸이 문화적 차이의 ‘평균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미디어에 크게 보도되었지만, 연말연시였기 때문인지 뉴스나 와이드쇼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속보나 특집이 편성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집중적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진짜 이유는 그 시기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디어가 이 사건에 대한 마스터 내러티브(master narrative)의 형(型)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レーマン, 2010: 42~44) 이벤트를 이야기(story)로 변환시킬 수 없었다거나(Bird, 2010: 4),⁴⁹ 혹은 (그 아빠에게서) 개인적인 원인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제도적인 개혁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일본에서 친자 분리의 룰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자동반자살이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⁵⁰

연소형 친자동반자살에서는 이러한 질적인 변화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노년형 친자동반자살의 경우 이른바 공격형이라 부를 만한 것이 과연 문화양식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보도되는 일은 있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야마나카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도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필요한 ‘말하는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개호살인 / 동반 자살에 관한 종래의 보도는 개인의 목숨이나 살 권리를 묻기보다는 돌봄의 노고에 동정과 공감을 보내는 경향이 지극히 강했다. 앞서 본 NHK 스페셜에서 다룬 두 번째 사례는 치매가 악화된 모친을 살해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형무소에게까지 찾아가 담아왔고 그 증언을 가지고 구성되었다. ‘가장 힘들고 불쌍한 건 우리 어머니였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당사자에게 프로그램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어쩌서 당신이 간호를 맡아서 한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즉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두 종래의 ‘집’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가족 신화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E. 버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元型론적 주제에 호소하는 닷”(Bird, 2010: 7)에 걸렸다고 할 수 있다.

보도 내용이 이 정도로 한 쪽에 쏠려 있다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친족 이외의 편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살해 행위, 즉 이웃이나 직장 관계자, 지인에 대한 일상적인 원한이나 미움이 쌓이고 쌓여 살인에 이르게 되는 일은 하나의 경향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표5). 또 ‘고학대사망아동’ 중에는 일상적인 폭력이 확대되어 결국 구타하여 죽이는 피구타아 증후군이 포함된다. 하지만 개호살인이나 ㉑의 상해치사는 차치하더라도 개호동반자살에서 이러한 일상을 상정하기란 어렵다. 필사적인 간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허무함과 불면에 빠져 힘든 간호에 대한 초조함에 기인하는 폭력은 있었을 수 있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학대라는 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건 제3자에 의해 목숨을 끊는 행위는 학대 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根本, 2007)⁵¹라는 “궁극적 학대”(萩原, 2009: 131)에 대한 선행연구의 규정도 있으나 이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다.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와 함께 피해자도 마찬가지로)에게 우울증이 많다는 논의(根本, 2007: 43; 湯原, 2011: 48)는 0세 영유아 살인이 많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많다는 설명에서의 우울과 동질적인 것인가? 행위적 측면에서 문제해결능력과 판단력 저하에 기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증상으로서의 우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우울병으로 단정 짓거나 우울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北中, 2014).⁵² 적어도 원인과 그에 이르는 메커니즘은 상이하기 때문이다.

신문기사 혹은 판례정보를 아무리 계량화해도 도출되는 것은 마스터 내러티브뿐이다. 데이터베이스화의 진행으로 양적 연구의 급증과 함께 자료 수집은 쉬워졌지만 그렇다고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결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 즉 미디어 보도는 여러 번의 가공과 선택을 통해 생산되는 마스터 내러티브일 뿐, 일차적으로는 기자의 주관적인 구술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시청자 =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간주관적으로 마스터 내러티브가 참조되는데, 개호살인 / 동반자살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본래 필요한 것은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검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을 파악하려 시도하는 논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⁵³

신문보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실히 도출 가능한 것 중의 하나는 사회적 요소 연관의 구조와 연관성 변화의 과정이라는 커다란 일상사적 전환, 변동의 역사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사히·요미우리·마이니치의 조·석간 전국판 및 지방판 신문 기사를 온라인에서 검색 가능한 최신 ‘G-Search 데이터베이스 신문·잡지 기사 횡단 검색’을 이용해 1998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동안의 친자 자·타살 458건을 추출한 아베 치하루(阿部千春)는 이 자료들의 일반화와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쿄도 검찰의무원의 사체검안서에 기초한 39년간의 자료(越永·高橋, 1985)와 신문보도의 일치율을 검증했다. 일치율은 71%였는데 이것을 낮다고 보아야 할지 높다고 보아야 할지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베는 현시점에서 본 발생요인의 시대특성을 전전기(戰前期)와 전후 쇼와 시대(1945~89)로 나누어 비교 검토하였는데(阿部, 2010: 112), 이는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8. 사쿠라다가 묻고자 한 것: <일상>의 구조 = 원인 연쇄 + 발생 메커니즘

신경통이나 심부전은 증상이다. 심부전의 증상은 호흡곤란, 천명, 부종, 냉감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상태(증후명)를 가리킨다. 이 病態(상태)는 심질환이 ‘원인’이 되어 심근수축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산소(혈액량)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폐울혈과 말초 세포 및 장기에 부종이 생기는 과정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말한다. 원인(사인)으로는 심근경색, 판막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과 메커니즘만 풀게 되면 그것으로 사인 분류는 충분하여 심질환에 이르게 된 原질환에 대해서까지는 그 규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에는 그에 이르게 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부정맥 등 여러 原요인이 있는데 이 또한 보다 깊이 그 원인을 따져보면 운동부족, 과체중, 흡연, 염분 과다섭취 등 생활습관병의 다양한 인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증중성을 ‘病的 事象의 연쇄’라고 부르는데, 즉 모든 것에는 인과와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다. 인과관계의 순서가 올바르게 기재되면 사인 분류에서는 原사인으로 분류되지만 예를 들어 간경변 또한 알콜성 간경변과 C형 간염으로 나뉘어 병인은 크게 달라진다.⁵⁴

사쿠라다에 따르면 우리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알기 쉬운 현상뿐이며 그가 문제로 삼고자 한 것은 잠재민속이라는 잘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암시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를 찾아내어 보다 증중적이고 복잡한 인과의 연쇄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事象 연쇄 중 하나의 요소의 변화가 다른 인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일상>이라는 차원에서 알아내는 것을 민속학의 사명이라 문제 제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는 생활외형 / 생활해설 / 생활의식이라는 3부 분류를 제시한 후 생활의식의 규명을 민속학의 목적으로 삼았다(柳田, 1990: 253~254). 이러한 ‘생활의식’을 아리가 기자에몬(有賀喜左衛門)은, 예를 들자면 “겉모습은 달라 보이는 棄兒, 햇수를 정한 고용살이(年季奉公), 몸팔이, 영아살해, 수양자식 등과 같은 일들은 그 당사자의 생활의식을 따라가보면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有賀, 1969: 347)고 지적했다. 일상의 폭력이 확대사로 발전한다는 의미에서의 일상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구조의 해명이야말로 민속학이 해야 할 일이다.⁵⁵

일상적 학대의 常態화 ⇒ 그 연장에서의 살해 ⇒ 후회 혹은 처벌되는 것을 혐오하여 행한 자살이라는 메커니즘과, 헌신적인 간호라는 일상 ⇒ 동반자살에 대한 생각과 각오 혹은 諸전제(즉 역사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일상> 구조) ⇒ 살해 / 동반자살이라는 흐름은 <일상>의 내용과 메커니즘을 달리 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개호 문제의 해결을 타인이나 시설에 어찌서 맡기지 않는가라는 점, 즉 간호를 포기하거나 피간호자의 방치, 유기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해결, 다시 말해 끝을 내고자 하는 당사자의 심경이다. 여기에는 첫째로 간호를 가족이 떠맡는 문화적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보다 두껍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관찰·기술할 수 있는 민속지적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개호와 관련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던 개호보험법은 2000년에 도입된 후 최근에는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면서 병원이나 특별양호노인시설 등과 같은 개호 시설에서 ‘자택’으로의 정책적 유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국 간호를 가족이 떠맡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개호보험제도와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유료노인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의 부유한 사람들뿐이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일을 희생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호에 전념해야만 한다. 즉 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경제적 요인과 경로의 배경에는 이를 허용하는 문화적 요인이 숨어 있다. 또, 예를 들어 가족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식들은 바빠 다른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서 간호를 떠맡아 고립감만 강해지는 것도 문화적인 심리요인이 잠재,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해온 까닭에 이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만둘지의

판단조차도 혼자 해야만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마음’이 <일상>의 구조로서 감돌고 있는 것이다 (梶谷, 2015; 2002; 2001). 헤르만 슈미트 등의 ‘새로운 현상학’에 근거하여 알브레히트 레만은 ‘분위기’나 ‘기분’을 문제시하였는데(Lehmann, 2007), 이를 그려내는 것도 바로 민속학적 방법의 활용으로 가능해진다. 나 혼자 죽는 것은 간호, 양호의 책임을 방기했음을 의미한다. 또 처음의 뜻을 끝내 이루지 못했다는 미련도 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생을 완결짓는다는 문화적 의미가 여기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도쿄도 감찰의무원인 우에노 마사히코(上野正彦) 등이 1981년에 발표한 자료는 예상 외의 경향성을 발견함으로써 화제가 되었다(上野·庄司·浅川, 1981). 그것은 1976년 이후 3년간의 사법해부를 통해 3세대 동거 고령자의 자살률이 독거노인, 즉 혼자 사는 고령자의 자살률보다 1.6배 높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후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산촌 지역에서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1986년에 발표된 니가타 현 히가시쿠비키 군의 실태조사에서는 자살한 고령자 135명 중 독거노인은 한 명도 없었으며 2·3세대 가족에서 배우자가 없는 고령자가 많았다(森田·須賀·内藤 외, 1986).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는 ‘병이나 노령화가 진전’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만다는 다시 말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거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로이다.

‘폐’라는 관념에 끌려온 것들이 도처에 숨겨져 있다.⁵⁶ 타인이나 사회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사회규범이 보다 심화되어 이젠 자식이나 가족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는 마음 편한 독거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자살률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한편 노노개호 세대에서는 개호를 담당하는 사람까지도 폐라는 관념을 내면화시키게 됨으로써 개호살인 / 동반자살을 일으키는 요인 연쇄의 비틀림을 낳고 있다. 다만 친자동반자살에서 연소형의 감소 경향은 폐라는 관념의 종언을 알리는 조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정말 그러하다면 폐라는 사회규범의 생물학, 즉 발생, 성장, 성숙, 쇠퇴, 소멸이라는 과정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다.

나오며: 글로벌화 혹은 초고령사회 민속학으로

주지하다시피 총인구에 대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이 고령화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칭하게 된다. 일본이 고령화사회가 된 것은 1970년이며 그 24년 후인 1994년에는 고령사회, 2007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돌입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고령화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5년 10월 1일 현재 26.7%를 나타내고 있다(内閣府, 2016: 2). 고령화의 최대 문제점은 그 속도라 할 수 있는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프랑스는 114년, 독일은 42년 걸렸던 반면 일본은 24년이라는 속도로 진행되어 사회적·제도적인 대응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11은 한중일의 향후 예측을 포함한 고령화율의 추이다(鈴置, 2012). 한국에서는 2008년의 이른 시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했다. 일본과 가장 다른 점은 자기부담률은 높지만 가족에 대한 현금부부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고 가족을 요양보호하면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시설 설립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 요양보호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재원지출 또한 억제할 수 있다(金, 2016). 좋은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재정상황의 악화 및 간호할 인재의 부족으로 인해 요양보호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개호이직(介護離職)이 일상화됨으로써 간호하기 위해 한창 일해야 하는 사람이 일

을 그만두는 일이 당연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과 취미를 잃어버리고 저금도 다 써버려서 살아갈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개호살인 /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현재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한편 일본에서는 몇 년 안에 분명히 실시될 예정인 개헌에서 자민당이 내놓은 초안 제24조에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기초적인 단위로서 존중받는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족규범이 한층 더 강화되는 ‘김새’를 느끼게 한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의 상승 또한 문제이다.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겨져 아버지가 처자를 죽이고 자살하는 일은 여러 번 보도되었지만 부모를 죽이고 자살하는 일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3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중죄로 여겨져 실제로 일어난 존속살인은 개인적인 특수 사례로서만 이야기되었다(노·양, 2003). 일본에서는 개호동반자살 미수로 살아남은 피고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언도되어 정상참작되는 판결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池田, 2006: 161). 한국에서 2005년에 일어난 개호살인사건에 관한 기사에는 “‘대소변 못 가린다.’ 친모 살해 패륜아에게 무기징역 선고”라는 제목이 붙었다(노컷뉴스, 2005). 일본에서는 1995년에 폐지된 존속살인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야만 할 개호살인 / 동반자살이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 아이돌 그룹 멤버의 57세 아버지가 차매를 앓게 된 84세, 79세 조부모의 간병으로 고된하다가 요양시설에 보내기로 결정하지만 이에 대한 저항감이 커 결국에는 동반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시설에 모시는 것을 ‘불효’라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 ‘사회풍토’를 지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연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14).⁵⁷ 일본에서는 ‘불효’라는 뜻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그 원인과 발생의 메커니즘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만의 문화정신과학자 林은 “각 문화에서 강조되는 정신증후 경향이 현대화에 따라 줄어드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연령층을 나누어서 증후 경향이 희박화됨을 예측했는데 연구 결과는 달랐다. 대만인 환자는 “젊은 연령층에 오히려 적대적 의식 증후가 연장자층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일본인 환자에서도 젊은 층이 연장자층보다 신경질적 증후가 강했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구성되는 정신 증후는 아마도 현대화에 의해 급속히 변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고 추정하였다(林, 1982: 333). 이 논고를 수정하여 게재·간행한 책에는 “친자동반자살이 문화적 배경을 갖는 현상”이며 만일 “격감했다고 한다면 그 변화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林, 2004: 167~8).

한편 필자는 몇 년 전에 일본의 한 젊은 연구자가 쓴 책의 1장을 읽고 깜짝 놀랐다. 박사논문을 정리한 그 책의 제목은 『현대일본의 장송의례』라는 온화한 것이었지만, 그 부연설명에서는 과거에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말로 전해온 측면이 강했다고 여겨지는 ‘타계’에 관한 관념에 대해 만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소프트의 담론 분석을 통해 중흥무진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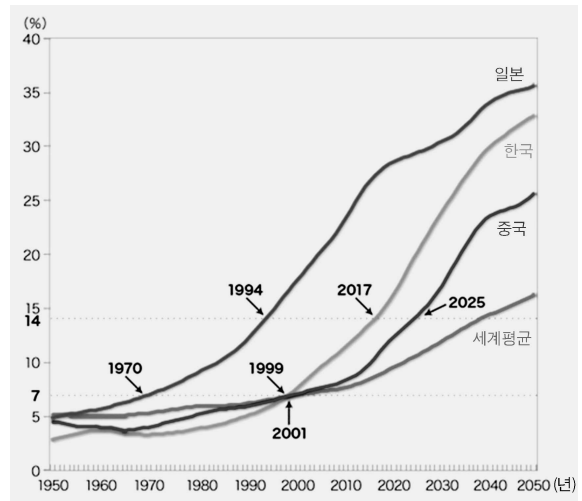


그림11 한중일 고령화율의 추이와 향후 예측
(전거: 鈴置高史, 『『老いてゆくアジア』の大泉啓一郎 氏に聞く』, 2012)

되었다(内藤, 2013: 321). 하지만 이후 요즘의 유학생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유학생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어렸을 적부터 일상적으로 매우 가까이해 왔으며 같은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젊은 일본인 대학생들의 타케관이나 행동유형, 사고양식, 세계관 등은 필자보다 문화적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하고 느끼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필자 자신도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보젤이 서술한 ‘오바케’로 겁을 먹은 적은 있어도 ‘저승觀’에 대해 들은 기억은 없다. 미디어를 통해 혹은 국어 교과서에 실린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단편소설 『거미줄』 등 광의의 매스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단편적인 브리콜리주로 존재함에 불과하다.

『전뇌 코일』과 같은 전뇌 공간을 ‘타케’로 여기는 세계관이 언젠가는 문화의 벽을 넘어 전개될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극적 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해도 필자의 생각은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林의 이해와 같다. 뉴미디어가 등장하고(ダナ, 2014),⁸⁸ 글로벌화가 진행된다 해도 텔레비전의 엄청난 기능으로 구축되어진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지금,⁸⁹ 국민국가의 문화가 그리 급속하게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평준화’하면서도, ‘폐’라는 관념에서 본 것처럼, 장기적 파동의 요소 연쇄의 연관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만이 가능하다. 유감스럽게도 수명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변화의 끝을 지켜볼 수는 없겠지만 한중일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글로벌화에 대해 urbanization(俗도시화)되어 갈 것인가(ムニョス, 2013), 중국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일상적 실천을 보여줄 것인가? 민속학자들의 과제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1) 구글 알리미 ‘동반자살’ (2016년 6월 25일 수신)

① 다치카와에서 동반자살? 차녀 사망, 장녀는 중태 2016.06.24 23:44

-요미우리 신문

24일 오후 3시 반경, 도쿄 도 다치카와 시 니시키쵸 맨션에서 주민으로부터 비상통보를 받고 출동한 경비회사 직원이 2층에 있는 집 현관에 혈흔이 있을 것을 발견하고 110번 신고

② 엄마와 여동생 찢려 언니가 동반자살을 꾀했나? 여동생 사망 도쿄·다치카와

-아사히 신문

24일 오후 3시 35분경, 도쿄 도 다치카와 시 니시키쵸 6쵸메 맨션 세대에서 ‘현관에 혈흔이 있다’는 경비회사 직원으로부터 110번 전화가 있었다. 집 안에는 50대 자매 2명...

③ 동반자살? 바다에 빠진 차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2구의 시체

-니혼 텔레비전 NEWS 24

오사카 부 사카이 시에서 바다에 빠진 차 안에서 두 구의 사체를 발견했다. 이달 들어 자취를 감췄던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은 사카이 시 사카이 구 칫코미나미마치...

바닷속 차에 2구의 시체=실종되었던 부자 동반자살인가? (사카이, 시사통신)

④ 50대 여성, 동반자살 꾀했나?

-로이터

경찰청 다치카와 경찰서는 언니가 동반자살을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치카와 서에 따르면 언니는 목과 배를 스스로 찢르고 중태이다. “두 사람을 부엌칼로 찢러 죽이려고 했다. 본인도 죽으려고...”

【부도 스테이션】 다치카와에서 여성 3명 질러...동반자살? (아사히 텔레비전)
동반자살을 꾀했나? 도쿄의 맨션에서 엄마와 딸 3명이 사상 (아사히 텔레비전)
50대 여성, 동반자살을 꾀했나? 도쿄 · 언니 찢리고 사망, 엄마도 부상 (Biglobe 뉴스)

⑤ 47뉴스 > 교도 뉴스 > 50대 여성, 동반자살 꾀했나? 도쿄 · 언니 찢리고 사망, 엄마도 부상
- 47 NEWS

24일 오후 3시 10분경, 도쿄 도 다치카와 시 니시키쵸 맨션 집에서 동거 중인 50대 자매와 80대 모친 3명이 칼에 찢려 부상,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⑥ 【충격사건의 핵심】 ‘죽을 것 같아’ ‘죄송해요’ 딸은 부모님의 옷을 잡고 차가운 강물 깊은 곳으로, 도네가와 강 동반자살...

- 산케이 뉴스

엄마는 치매, 일가족을 먹여살려온 아버지도 병으로 쓰러져 생활보호를 신청하던 중에 일가족 동반자살을 선택한 가족 3명. ‘죽을 것 같아’ ‘죄송해요’ 살아남은 딸은 법정에서...

注

- 1 홋카이도 경찰은 행방불명에 이른 경위에 사건성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 등에 대한 형사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심리적 학대’의 의심이 든다고 본 홋카이도 경찰의 통고를 받은 하코다테 아동상담소가 소년의 부모로부터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고 전해진다(朝日新聞, 2016a).
- 2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2016b) 외에도 육아 관련 블로그(ひびわれたまご, 2016a)에서 다수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 3 일본어 ‘出來事’란 중국어나 한국어의 ‘事情’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중국어로는 ‘신변적인 사정’ 정도가 가장 가까운 번역어라 할 수 있겠으나 일본어에는 ‘事物’에 대해 ‘物事’라는 표현도 존재한다. 일본의 사전 『明鏡國語辭典』의 용례 해설을 참고하면 ‘事物’은 물건·물질에, ‘物事’는 일에 중점을 두어 쓰이며 ‘事柄’는 ‘物事’보다 더욱 추상적인 단어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出來事’, ‘事柄’, ‘物事’와 같은 단어 쓰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의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이나 상태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자제나 태도로서 존중받는다. ‘일(物事)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일(物事)에 개의하지 않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대범함은 ‘대륙적인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사소한 일에 구애 받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일본에도 있지만 이토 아비토(伊藤亜人)가 지적한 것처럼 대륙적인 원리에 대해 논하는 것을 좋아하고 논리 체계성을 중시하는 유교 체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의 언어세계적 지향성과는 분명 다르다(伊藤, 2012: 234).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것 또한 구상화해서

- 4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일상>을 아무리 엄밀히 정의하더라도 이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내용은 한중일 각 나라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의 살림살이 연구 등과 같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협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자살 실태 해석 프로젝트 팀은 1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살의 배경에는 68개의 위기요인이 숨어 있으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기요인 수는 평균 4개로 자살로 내몰리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밝혔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의 72%가 전문기관의 상담창구를 방문하지만 한 가지가 해결되어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창구에 상담이 들어왔을 때 다른 곳의 각 창구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지원책의 연계가 중시되었다. 경찰청이 자살통계를 시작한 1978년 이후 대략 연간 2만 명대 전반에 머물렀던 자살자 수는 1998년에 전년 대비 30% 늘어난 3만 2863명을 기록하였다. ‘98년 쇼크라 불릴 정도였는데, 이후 2011년까지 14년 연속 연간 3만 명을 넘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2012년에 15년 만에 3만 명을 밑돌게 되었고 그 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 자살대책기본법이 2006년에 시행되어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다중책무나 실업 등 사회적 문제들을 자살대책지원센터 라이프링크가 중심이 되어 면밀히 조사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자살의 위기 경로’를 찾아냄으로써 발생 메커니즘에도 지역 단위의 몇 가지 패턴이 존재함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자살대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정촌(일본 지자체) 단위의 ‘자살

- 대책행동계획을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 5 멀티튜드(Multitude)란 글로벌 권력에 대항하는 글로벌 민주주의의 주체를 말한다.
 - 6 스웨덴 미디어학의 전문가인 달그렌은 새로운 미디어가 정치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인 이상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의 형식이나 공동된 가치관 속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미디어에 정치체계가 개입되어 있다.
 - 7 바실 번스타인의 교육담론 이론에 따라 육아와 교육과 같은 지식 전달, 문화 전달의 영위에 관한 담론과 원리를 이를 갖고 담론의 배분, 전달, 획득의 전체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상징적 통제'를 제시하였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육아와 관련된 말들의 묶음'이다(天童 研, 2016: 6).
 - 8 한국에도 같은 표현이 있는데 '다리 밑'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절묘하게 응용하였다.
 - 9 영국에서는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1889년부터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법적 개입이 가능해졌다. 또 아이를 혼자 남겨두는 행동이 위법시된 것은 1933년 아동소년법 이후이다(伏見, 2016).
 - 10 중국의 江紹原是 독일의 Volkskunde가 민속학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민학'을 주창했는데(원전은 『現代英國諺俗與謠俗學』中華書局, 1932년에 수록된 부록 7 「Folklore, Volkskunde와 『민학』에 관한 시론」인데, 자세한 내용은 (子安, 2005: 30)을 참조할 것) 필자 또한 민속학의 대상은 folklore이 아니라 민을 과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folklore는 연구대상뿐만 아니라 학문도 가리키는데 Volkskunde는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학문 그 자체만을 의미할 뿐이다.
 - 11 이후 이 수법은 '수용의 민족지' (ethnography of reception)라고도 불리고 있다.
 - 12 재인용한 Spitulnik의 원래 논의는 "Anthropology of Mas Media"(Spitulnik, Debra,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2, 1993, p.293)를 참조할 것.
 - 13 영상인류학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村尾・箭内・久保 編, 2014)를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 축적이 있다.
 - 14 Abu Lughod에 의한 이집트 텔레비전 방송의 멜로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문화의 생산과 소통에 관한 연구(Abu Lughod, 1998: 2006) 등이 있다.
 - 15 그 외에도 시라카와 치히로(白川千尋)의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멜라네시아의 표상』과 이다 타쿠(飯田卓)의 『이문화의 패키징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민족지의 비교를 통해』가 게재되었다. 『민박통신』 102호(국립민족학박물관, 2003년 9월)에서도 「매스 미디어 사회와 마주하는 인류학」을 특집으로 삼았으나 게재된 글들은 짧은 보고에 그쳤고 국립민족학박물관의 공동연구(「다중 미디어 환경과 민족지」 2002~03년도)의 성과보고서는 (飯田・原編, 2005)로 정리되었다. 텔레비전론도 포함되었는데 예를 들어 마스다 켄(増田研)의 『어느 성인의례의 드라마화: 『현지의 안내인』에서 『표상의 중개자』로』, 미나미 마키토(南真木人)의 『해의 정보형 퀴즈 프로그램과 인류학: 『세계 우루롱 체제기』를 사례로』 등과 같이 이문화의 표상에 관한 논의에 그쳐 있다. 또 (杉本編, 2012)도 동 박물관의 공동연구 「지역 SN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구축에 관한 연구」(2007~10년도)에 기초한 연구 보고서이다.
 - 16 (飯田, 2007)과 같은 연구도 있는데, 리뷰 논문으로는 (糸林, 2006)이 있다. 민속학에서도 매스 미디어를 논한 논고는 일본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줄고 외에 (法橋, 2000)이 아마도 유일할 것이다. 훗코에 의하면 독일어권에서는 1930년대부터 전설과 공동된 모티프를 갖는 신문기사에 대해 '신문전설(Zeitungsage)'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후 매스 미디어 연구에 관해서는 이 책의 이상현 논문을 참고할 것. 또 독일어 논문(ベックドルフ, 2015)에 대해서는 오이카와 쇼헤 등이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 17 Elizabeth Bird의 최근 저서로서 Bird, S.E. and F. Ottanelli, eds., *The Performance of Memory as Transitional Justice*, Cambridge UK/Mortsel Belgium: Intersentia, 2015가 있다.
 - 18 하시모토 요시아키(橋元良明)에 따르면 텔레비전이나 신문이 지나는 '총람성'이란 "흥미 있는 기사를 읽는 길에 정치나 국제면의 제목에도 눈이 가는" 것을 뜻하며 Carey가 말한 뉴스의 세력 지도를 일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리킨다. 인터넷은 "대부분은 자신의 관심에 맞춰진 우물 안 형식의 탐색"이 되기 때문에 뉴스의 "총람"적 기능이나 사회적 사건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매체로서는 지금도 텔레비전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橋元, 2011: 154: 60-01).
 - 19 이 부분의 전거는 Dayan, D. & Katz, E., "Télévision d'intervention et spectacle politique [Television intervention and political spectacle]." *Hermes*, 17-18, 1995, p.166.
 - 20 이 외에 Carey의 의례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Silverstone, 1994), (シルバーストーン, 2003) 등이 유명하다.
 - 21 이 표에서 "일가"란 일가족 전원 혹은 부모와 자녀, "기타"란 조부모와 손주, 형제자매 등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으나 부부동반자살의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2 대표적인 저작으로 (高橋, 1987)을 들 수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田口, 2007)를 비롯하여 산욕기 우울증 등과의 관련성에서 영유아기 모자에 한정짓는 연구가 많다.
 - 23 친자동반자살이라는 현상은 과거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오다 스스무(小田晋)가 지적한 것처럼 구미에서도 우울증의 경우 가족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죽는 '확대자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집에서 가족 중 가장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자비살인'과 사후 가족이 고통과 빈곤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배우자

- 등을 살해하는 ‘사공포증살인’ 또한 발생한다(小田, 1973: 122~123). 이러한 행위적 레벨에서의 범세계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필자는 모리스 관계가 설명하는 것처럼 구미의 경우 “돌발적인 정신 억울의 징후로 여겨져 아만적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반해 일본의 <진동>은 “거기에서 자기자신의 모습”을 보고 “친자동반자살에 어떠한 합리성을 부여해왔다”(バンゲ, 1986: 6)는 점에서 일정한 문화적 패턴이 형성된 문화론, 사회 레벨에서의 현상이라 보고 있다.
- 24 친자동반자살 수는 (小峰, 1937), 양육기아 수는 『일본제국통계연감』 1~53회를 통해 작성. 친자동반자살은 기수·미수를 합친 것이지만, (飯塚, 1982)의 1975~80년의 수치는 기수뿐임에 주의할 것.
- 25 양육기아란 그 전부터 있었던 버려진 아이를 마을이 맡거나 양부모가 맡는 관행을 계승한 메이지 신정부가 1871(메이지4)년부터 13세 미만의 양육기아에 대해 연간 일곱 말의 쌀을 지급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부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친자동반자살이 빈번해지자 1929(쇼와4)년에 공포한 구호법이 1932년에 시행될 때까지 버려진 아이를 양육하는 시설이나 가정에 쌀을 지급하였다. 표의 수치는 연간 버려지는 아이의 숫자가 아니라 쌀이 지급된 13세 미만 아이의 누적 수이다.
- 26 필자는 1920년 조선일보·동아일보의 창간호부터 기사를 추적하고 있는데, 1922년에 ‘세 모자가 투산’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미 존재하였다. 다만 민출하지는 않으며 ‘일시자살’, ‘동시익사’ 등과 같이 그 표현은 보통 명사화되지 않은 채 적당히 명명되었다. 행위 레벨에서도 이 시기의 형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즉 모자, 부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2자간의 복합자살이라는 것이며 이는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남편+처+자녀라는 3자 관계 이상의 집단적 형태로 발현된다. 이에 대해 1960년대 전후에 ‘일가집단자살’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는데 이후 집단자살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간에는 1970년 경부터 ‘동반자살’이라는 명사가 일반화되었다. 이 또한 그때까지 ‘정사’라 이름 붙여졌던 부부 이외의 남녀 사이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가꾸로 ‘집단자살’은 타인끼리 혹은 다수에 의한 자살인 경우에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이에 관한 자세한 논문은 미발표이다. (岩本, 2005)를 참조할 것).
- 27 평균화에 관해서는 (岩本, 2015)와 (ムユス, 2013)을 참조할 것.
- 28 2003년 7월에 일어난 ‘빛 때문에 / 회사원이 노모와 아들을 살해 … 아내까지 죽이려다 잡혀’라는 기사(동아일보, 날짜는 생략)에서 34세가 69세의 어머니와 3세 아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관건으로는 존속피해에 관한 첫 번째 기사이다(단, 현상으로는 존재했지만 기사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말다툼 등으로 존속살해 후 부녀자에게 피해를 미친 예도 ‘일가집단자살’ 이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존속살인에 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잘 드러나지 않았다).
- 29 이후에는 2009년에 異姓不祀와 호주제도를 대담하게 개혁한 가족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부권구조도 와해되었다. 부계에만 한정되었던 제사계승을 딸에게도 인정된 대개혁으로 유교적인 원리나 이념은 거의 붕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에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선택적인 부부별성조차 부결된 일본보다도 현실사회의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가족제도 또한 훨씬 선진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아직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설명에 그쳤다.
- 30 OECD,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4* 년도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1년판을 이용한다.
- 31 일본에서도 이전에는 예를 들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일을 가족의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는 듯한 몇몇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의식이 존재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大岡, 2004; 岩本, 2005)를 참조할 것.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후술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불효’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상정하기란 어렵게 되었다.
- 32 개호라는 단어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해 두기로 한다. 일본어 『広辞苑』을 보면 1983년 제3판까지는 없었으나 1991년에 간행된 제4판부터 게재된 현대적인 신조어이다. ‘개조’와 ‘간호’를 합쳐서 개호용품 회사가 만든 조어라는 설도 있지만 속어로서는 1982년 『陸軍軍人傷痍疾病恩給等差例』에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이후 은급법(恩給法)과 구호법에 관한 규칙에도 쓰였는데,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공적 급부의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는 용법에 사용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1963년 ‘노인복지법’부터이며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2000년에 시행된 ‘개호보험법’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개호복지사 외에도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 방문개호원(홈 헬퍼), 외출개호원(가이드 헬퍼) 등 그 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적인 행동을 돕는 ‘개조’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津田, 2005; 中島, 2001).
- 33 ‘개호자수(개호를 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는 (総務省統計局, 2013: 70)에 의한 것인데, 후술하는 NHK 스페셜 처음에 인용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중 50%가 60세 이상이며 과거 5년간 개호이직자는 48만 7천명, 이 중 여성이 약 80%를 차지한다. 2016년 4월말 현재 요개호인정자는 621만 5천 명이다(厚生労働省, 2016 홈페이지).
- 34 2013년 7월부터 알림 수가 월 10건 가까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증명하기 어렵다. 검색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는지도 모르겠다. 2006년 증가의 배경에는 2집 교토 시 가쓰라가와에서 발생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86세 노모를 목졸라 살해하고 승낙살인으로 의심되었던 54세 장남은 어머니 간병을 위해 회사를 관두었고 수입은 끊겼다. 데이 케어

- 등의 개호비용과 약 3만 엔의 월세를 내지 못해 생활 보호를 신청하고자 했지만 거부되었다. 마지막 날 휠체어에 탄 어머니에게 교토 시내 구경을 시켜 드린 후 ‘더는 못 살겠어요. 이제 끝이에요’라고 말한 장남에게 ‘안 된다. 같이 가야지.’라고 대답한 어머니. 검찰측도 범행 직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피고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지방재판소도 옳았다’는 사건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같은 해 7월 교토 지방재판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구형·징역3년)을 언도하였는데 재판관은 ‘재판받아야 하는 것은 일본의 개호제도와 행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다룬 미디어는 (山藤, 2007) 등 다수 있다. 장남은 법정에서 ‘어머니의 뒤통까지 살고 싶다고 말하며 재기를 맹세했고 목욕회사에서 일했지만 8년 후 고독을 못이겨 비와코 호수에 투신자살했음이 알려져 2016년 다시 화제가 되었다.
- 35 NHK 스페셜 『나는 가족을 죽였다: 개호살인 당사자들의 고백』 2016년 7월 3일. 이 특집의 취재배경과 프로그램의 의도, 방영시간 50분에 수록하지 못했던 다른 사례들(3가지 사례)과 앙케이트 결과 등은 NHK 개호살인조사로서 NHK 홈페이지(<http://www.nhk.or.jp/d-navi/link/kaigosatsujin/>)에 수록되어 있다.
- 36 이 사례는 NHK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 선전용 NEWS 7월 1일 방송된 NEWS 세븐과 같은날 NEWS 위치 9에서 소개되었다. 여기서 제일 강조되었던 것은 ‘상세한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은 … 만 수 이상이 간호를 시작하지 3년 이내’라는 점이었다.
- 37 친자동반자살에 관한 자료에서 단독가해자의 실제 사례를 ‘생부단독’과 ‘생모단독’으로 나눠 비교검토하여 형태별 비율을 보면 전자에서 ‘모자동반자살’이 90% 이상인데 반해 후자에서는 ‘부자동반자살’이 약 50%이고 ‘부모자녀 동반자살’이 40%를 점하고 있다(長尾·川崎, 2013). 이러한 경향이 한국의 경우에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岩本, 2006)에서 지적하였다.
- 38 총 134건 중 살인 + 자살형(의 동반자살)은 64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사망한 것은 24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 야마나카에 따르면 저널리즘이 ‘개호살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1985년 10월 『아사히 저널』이 처음이라고 한다(山中, 2004: 36).
- 39 물론 NHK 스페셜이 심도 있게 파헤친 새로운 발견도 있다. NHK 뉴스의 내레이션에서 ‘상세히 분석해보자 새로운 실태가 드러났다고 강조한 것은 75%가 데이홈에 다니는 등 개호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등 때문이었다. 다만 선행연구에 비슷한 분석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加藤, 2005)가 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614명을 대상으로 한 개호경험자 앙케이트(대상자 388명)를 통해 돌보고 있는 대상을 ‘죽이고 싶다;’ ‘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가끔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4%였고 가족이 몇 명 있더라도 다른 가족이 바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호자 혼자서 고독에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어

- 딘가에 부탁하지 못하고 혼자만 남겨져 있는 듯한 고립감이 강해졌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었다.
- 40 (厚生労働省, 2015; 2016)에 따르면 고령자 사망사건의 경우 2013년도에는 21건, 14년에는 25건 발생하였다. 내용을 보면 ‘양호자에 의한 피양호자의 살인’이 12건(12명, 이하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므로 명수는 생략)·12건, ‘양호자의 개호 등 포기(neglect)로 인한 치사’가 6건·7건, ‘양호자의 학대(neglect 제외)로 인한 치사’가 2건·2건, ‘동반자살’이 1건·3건, ‘기타’가 0건·1건이었다. ‘동반자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치가 너무도 적다.
- 41 『헤세19년 범죄』부터는 『양육 고민』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와 연동되어 경찰의 자살통계에도 같은 해부터 이 두 항목이 더해졌다. 단, 2007년부터 수치를 게재한 『헤세19년 자살 개요자료』에는 ‘헤세 19년에 자살 통계원표를 개정하고 유서 등 자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추정 가능한 원인 및 동기를 자살자 1명 당 3개까지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계가 일치되지 않고 번잡해졌기 때문에 표4에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공표된 분류는 당시까지 ‘가족문제’로 크게 묶였지만 분류가 상세해지는 한편 이 해부터 유서있음과 유서없음의 수치는 불분명해졌다. 전년도 2006년을 예로 들자면 유서있음은 10,466명, 유서없음은 21,689명으로 유서를 남긴 사람은 약 33%에 지나지 않았다. 또 2015년 개호·간병 피로로 인한 자살은 경찰청 『헤세26년 자살 개황』 부록1을 보면 남자 136명, 여자 110명으로 남성 비율이 높은 개호살인 / 동반자살과 비교해 여성 자살이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참조한 것은 모두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42 이 검증 결과는 의심스러운 불상사 사례에 대한 부검 실시율이 74.3~83%이기는 하지만 사법-의료-행정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 43 2006년에 발각된 순간 온수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나 그 이듬해에 발생한 이른바 도키쓰카제베야 사건을 하나의 계기로 하여 사인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2012년에 제정된 ‘사인규명’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2년 법률 제33호)에 이어 2014년에 ‘사인규명 등 추진계획’이 각의 결정되었다.
- 44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친족관계수는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친족 이외의 면식이 있는 사람 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살인에서 친족율은 높아진 것이다.
- 45 가장 전형적인 발언은 2009년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 당시 가메 시즈카 금융대신의 발언인데 “개혁이라 부르는 극단적인 시장원리, 시장주의가 시작된 이래 가족의 붕괴, 가족 간의 살인이 늘어났다. 그러한 풍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단련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고 그 지론을 취소하지 않았다(朝日新聞, 2009).
- 46 (경찰청, 2016)에 따르면 살인의 인지건수는 2015년 933건, 2014년 1054건, 2013년 938건, 2012년

- 1032건, 2011년 1052건이었다. 2011년은 앞서 인용한 (法務総合研究所, 2013)과 비교해 1건 차이가 있다.
- 47 (加藤, 2005: 53)에 따르면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옥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상해치사가 많다고 한다.
- 48 (川崎·松本, 2013)에는 자료 「2000년대에 신문보도된 ‘친자동반자살’ 사례 일람」이 실려 있다. 395건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생부·생모가 이혼 조정이나 친권·별거를 둘러싼 다툼, 아이를 데리고 자살한 사례는 단 5건 있다. 이야기화하는 어형(語型)의 유무 때문인지 아직 판별하기 어렵지만 2010년대 이후 현저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 49 또는 알레산드로 포르텔리(Alessandro Portelli)가 사건을 음운론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참고가 된다. “하나의 조합(언어)으로 음이 되는 것은 다른 조합으로는 단순한 소음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건도 의미의 패턴과 잘 맞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식된다”(ポルテリ, 2016: 120).
- 50 현재 일본에서는 이혼 후의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 ‘친자단절방지법’이 검토될 정도로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 조정 이혼의 경우 약 90%가 모친 측에게 친권을 부여하는데 단독 친권으로 별거한 부모의 정기적인 면회가 보증되지 않아 60% 정도의 한쪽 부모가 면회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편친 소외’라 불리는데 ‘감독의 계속성’이라는 명목 하에 변호사도 ‘자녀를 데리고 가버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친권을 목적으로 한 허위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등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재빨리 친족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녀의 복지나 이익’을 우선시하고 협의 이혼에 가정법원이 개입하거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치되는 등 실태에 맞춘 법제개혁 또한 진행 중에 있지만 일본은 사법 조차도 보수적이다.
- 51 단, 단순 개호 피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根本, 2007: 41).
- 52 최근 우울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1980년에 간행된 미 정신의학회 진단 매뉴얼 DSM-III에 의해 개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인데(北中, 2014: 2), 우울병으로의 환원주의는 당사자의 실존적 갈등을 병리로 왜소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北中, 2014: 55).
- 53 그 중 미야모토 요하네(宮元預羽)에 의한 일련의 행동 분석학적 연구(宮元·三橋·永嶋, 2013; 宮本, 2014)는 선행조건 ⇒ 행동 ⇒ 결과에 E확립조직(상황상)과 H역사 또한 덧붙여 그 연관을 석출하였다. 필자가 주장하는 일상학으로서의 민속학은 상황상과 역사 속 요인 연쇄의 메커니즘을 보다 거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 54 우울은 증상이며 우울병이라는 병명도 있는 복잡한 병이다. 그 원인은 외인성, 내인성, 심인성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대우울병’에 일괄된다(北中, 2014: 2).
- 55 집합론을 통해 지역구조도를 전개한 치마 도쿠지(千葉徳爾)는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 그림 ‘주부권의 구조’ (千葉, 1976: 127)를 직능과 권능의 관계에서 생산과 호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상 구조로서 요소 연관과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있다.
- 56 2002년 후쿠시마 현 자료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살자의 대부분이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혼자 사는 고령자의 자살은 전체의 5% 이하였다(福島県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 2010). 또 (毎日新聞, 2010) 기사 「가족과 동거하는 고령자 자살 / ‘왜 끼치고 싶지 않다」는 고령자는 가족과 동거하더라도 주간에는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촌에서는 버스 노선이 축소되어 공공 교통이 확보되기 어려워 통원 교통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외출하더라도 기분전환하기 어려운 요인들을 열거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기역할의 상실감을 경험한 고령자가 스스로를 가족의 애물이라 여겨 눈치를 보게 되는 ‘기분’이 들고 자기부정으로까지 의식이 흘러가게 되어 커다란 정신적 부담이 되어 고령자를 짓누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유유서를 중시하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현실적 접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나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추측한다.
- 57 2005년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개호살인(한국에서는 ‘간병살인’)이지만, 지금은 징역 5~7년,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15년 6월 X일에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공소심에서 1심 of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가정 내 치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지를 얻어 집행유예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노컷뉴스, 2015). 징역이 일본보다 긴 이유는 존속살인죄로 가중처벌받기 때문이다. 또 한국 경찰청의 범죄 데이터베이스 SCAS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7년 3개월치 데이터를 해석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정성국·이재란 외, 2014)에 따르면 존속살인은 50~60건, 자식살인은 30~39건 발생했는데, 전자의 가해자의 87.1%가 남성이고 또 연령별로는 50대 8.28%, 60대 이상이 2.07%를 나타내 노노살인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사례가 약 10%를 웃돌고 있다. 후자인 자식살인은 46%가 범행 후 자살하였다(정·이 외, 2014). 이 연구는 일반 살인과는 다른 가족 내 살인의 특수성을 석출했지만 안타깝게도 부부살인·부부동반자살은 포함되지 않았다.
- 58 (보이드, 2014)의 원제는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Yale University Press, 2014)이며 여기에는 기체가 복잡하다는 뜻과 이해하기 어렵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166명의 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기초하여 예를 들어 인터넷과 젊은이들의 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도식전설을 하나하나 부정해 나갔다.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친구와 연결되는 것은 성인이 거리나 쇼핑몰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몰아냈기 때문이라고 하며 청소년들의 사교의 장은 SNS 사이트로 옮겨진데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59 Abu-Lughod은 텔레비전의 국민통합적 기능을 우선

중시한다(Abu-Lughod, 2006). 올림픽, 영토문제 모두에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 강화함에 기여하는 텔레비전 영상의 위력은 인터넷 우익들에 비할 바 아니다. 다만 다채널화가 진행되고 인터넷 검색이 가까

워진 한국과 중국, 지상 디지털의 중심 방송국이 여전히 우선시되는 일본의 미디어 환경은 그 상황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뉴스의 총람성에 대한 논의도 우선은 일본에 국한시켜 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일본어

- 朝日新聞, 「強気の亀井発言波紋 / 家族間殺人の風潮『企業責任』」, 『朝日新聞』 2009年10月7日付, 2009.
- _____, 「しつけ置き去り刑事責任問わず大和君『一人で行った』」, 『朝日新聞』 2016年6月6日付, 2016a.
- _____, 「虐待としつけ, 境目は?ママたち, 日常を振り返る」, 『朝日新聞』 2016年6月15日付, 2016b.
- アバデュライ・アルジュン, 『さまよえる近代: グローバル化の文化研究』, 平凡社(門田健一訳), 2004.
- 阿部千春, 「母による親子自他殺の動機とその背景要因に関する研究」, 『民族衛生』 76(3), 2010.
- 有賀喜左衛門, 「名子の賦役, その他」, 『有賀喜左衛門著作集』 VIII, 未来社, 1969.
- ネグリ・アントニオ・マイケル・ハート, 『マルチチュード: <帝国>時代の戦争と民主主義』(上・下), NHK出版(幾島幸子訳), 2005.
- 飯田卓, 「昭和30年代の海外学術エクスペディション: 『日本の人類学』, の戦後とマスメディア」,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31(2), 2007.
- 飯田卓・原知章編, 『電子メディアを飼いならす: 異文化を橋渡すフィールド研究の視座』, せりか書房, 2005.
- 飯塚進, 「道連れ自殺, 今昔」, 『桃山学院大学社会学論集』 12(2), 1982.
- 池田直樹, 「高齢者虐待防止に向けた弁護士会の取り組み」, 高齢者虐待防止研究会編, 『高齢者に挑む“増補版”: 発見, 介入, 予防の視点』, 中央法規出版, 2006.
- 磯村英一, 『心中考』, 講談社, 1959.
- 伊藤亜人, 「民俗文化と文明世界」, 岩本通弥・菅豊・中村淳編, 『民俗学の可能性を拓く: 『野の学問』, とアカデミズム』, 青弓社, 2012.
- 糸林誉史, 「メディア人類学: マス・メディアに媒介された文化形式の民族誌」, 『文化女子大学紀要: 人文・社会科学研究』 14, 2006.
- 岩本通弥, 「<親子心中>をめぐる象徴的システムの日韓比較(1): 神話的な語りとしての『自殺事件』の民俗学的分析」,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54集, 国立歴史民俗博物館, 1993.
- _____, 「フェロー研究紹介: 親子心中の日韓比較に関する歴史民俗学的研究」, 『日韓文化交流基金NEWS』 33号, 2005.
- _____, 「親子心中の日韓比較に関する歴史民俗学的研究: 民俗文化と近代家族の変容過程(1995年以降の動向を中心に)」, 『訪韓学術研究者論文集』 6巻, 日韓文化交流基金, 2006a.
- _____, 「家族といのち: 家族内殺人をめぐるフォークロア」, 新谷尚紀・岩本通弥編, 『都市の暮らしの民俗学③』, 吉川弘文館, 2006b.
- _____, 「『スウェーデンの冥福観と老人介護』へのコメント: 民俗学の立場から」, 『比較日本文化研究』 11号, 2007a.
- _____, 「都市化に伴う家族の変容」, 沢山美果子・岩上真珠・立山徳子・赤川学・岩本通弥, 『『家族』, はどこへいく』, 青弓社, 2007b.
- _____, 「可視化する習俗: 民力涵養運動期における『国民儀礼』の創出」,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41集, 2008a.
- _____, 「“当たり前”と“生活疑問”と“日常”」, 『日常と文化』 1号, 2015.
- 上野正彦・庄司宗介・浅川昌洋ほか, 「老人の自殺」, 『日大医学雑誌』 40巻10号, 1981.
- ヴォーゲル・エズラ・F., 『日本の新中間階級: サラリーマンとその家族』, 誠信書房(佐々木徹郎訳), 1968.
- 小田晋, 「書評: 大原健士郎著 心中考: 愛と死の病理」, 『精神医学』 15(12), 1973.
- 大岡頼光, 『なぜ老人を介護するのか: スウェーデンと日本の家と死生観』, 勁草書房, 2004.
- 梶谷真司, 「集合心性と異他性: 民俗世界の現象学」, 小川侃編, 『雰囲気と集合心性』,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1.
- _____, 「シュミット現象学の根本問題: 身体と感情からの思索」,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2.
- _____, 「現象学 から見た異人論: 雰囲気と異他性と民俗文化」, 山泰幸・小松和彦編, 『異人論とは何か』, ミネルヴァ書房, 2015.
- 加藤悦子, 『介護殺人: 司法福祉の視点から』, クレス出版, 2005.

- 川崎二三彦・松本俊彦ほか, 『平成23年度報告書「親子心中」に関する研究(2)現在の実情: 2000年代に新聞報道された事例の分析』, 子どもの虹情報研究センター, 2013.
- 北中淳子, 『うつ医療人類学』, 日本評論社, 2014.
- 金明中, 『韓国における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課題: 日本へのインプリケーションは?』, 『ニッセイ基礎研レポート』, ニッセイ研究所, 2016.
- 警察庁, 『平成28年版警察白書』, 2016(最終アクセス2016年7月1日: <https://www.npa.go.jp/hakusyo/h28/data.html>)
- 厚生労働省, 『高齢者虐待対応調査状況調査結果概要』(平成25年度・同26年度), 2015・2016.
- 厚生労働省・社会保障審議会児童部門・児童虐待等要保護事例の検証に関する専門委員会, 『子ども虐待における死亡事例等の検証結果等について(11次報告)』, 2015(をはじめ, 第1次~10次報告).
- 厚生労働省HP, 『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 暫定(2016年4月分)』, 2016
(最終アクセス日2016年7月10日: <http://www.mhlw.go.jp/topics/kaigo/osirase/jigyo/m16/dl/1604a.pdf>)
- 越永重四郎・高橋重宏, 『戦後39年間の東京都23区内における心中の実態』, 『厚生統計協会』 32(15), 厚生統計協会, 1985.
- 小峰茂之, 『明治大正昭和年間に於ける親子心中の医学的考察』, 小峰研究所紀要5, 1937.
- 子安加余子, 『近代中国と民俗学: 周作人・江紹原・顧頡剛』, 『福井大学教育地域科学部紀要Ⅰ』 56, 2005.
- 近藤明, 『「迷惑」の意味変化: 松井利彦氏・横井澄枝氏の論との関係から』, 『金沢大学人間社会学域学校教育学類紀要』 6号, 2014.
- 近藤明・那叶青, 『日本語「迷惑」と中国語「麻煩」の意味・用法の対照的考察』, 『金沢大学教育学部紀要(人文科学・社会科学編)』 57号, 2008.
_____, 『「迷惑」の意味変化: 虎明本狂言から四迷・漱石まで』, 『金沢大学人間社会学域学校教育学類紀要』 3号, 2011.
- 櫻田勝徳, 『「近代化」と民俗学』, 和歌森太郎編, 『日本民俗学講座5民俗学の方法』, 朝倉書店, 1976.
- 産経新聞, 『【衝撃事件の核心】「死んじゃうよ」「ごめんね」娘は両親の服をつかみ冷たい川の深みに進んだ利根川心中で娘が明かした悲痛な決意』, 『産経ニュース』, 2016年6月25日, 同年7月1日更新(最終アクセス日2016年8月10日:
<http://www.sankei.com/affairs/news/160625/af1606250002-n1.html>)
- 自殺実態解析プロジェクトチーム編, 『自殺実態白書2008【第二版】』NPO法人自殺対策支援センターライフリンク, 2008.
- 清水昭美, 『<老病心中>の発生要件: ある囑託殺人事例を中心として』, 『大阪大学医療技術短期大学部研究紀要自然科学・医療科学篇』 3輯, 1973.
- シルバーストン・ロジャー, 『なぜメディア研究か: 経験・テキスト・他者』(吉見俊哉ほか訳), せりか書房, 2003.
- 杉本星子編, 『情報化時代のローカルコミュニティ: ITCを活用した地域ネットワークの構築』(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106), 2012.
- 鈴置高史, 『「老いてゆくアジア」の大泉啓一郎氏に聞く』, 『日経ビジネス』, 2012年11月29日(最終アクセス日2016年7月30日: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report/20121126/240071/>).
- 捜査第一課, 『公安委員会説明資料No.平成27年度中における死体取扱状況について』, 警察庁, 2016年2月25日(最終アクセス日2016年8月12日: <https://www.npsc.go.jp/report28/02-25.pdf>).
- 総務省統計局, 『平成24年就業構造基本調査: 結果の概要』, 2013
(最終アクセス日2016年7月30日: <http://www.stat.go.jp/data/shugyou/2012/pdf/kgaiyou.pdf>).
- 高橋重宏, 『母子心中の実態と家族関係の健康化: 保健福祉学的アプローチによる研究』, 川島書店, 1987.
_____, 『わが国の自殺の実相と予防のための基礎知識: 精神科医の立場から』, 生越照幸編, 『自殺問題と法的支援』, 日本評論社, 2012.
- 武川正吾, 『家族の介護力は元々存在しなかった』, 『社会学年報』 29巻, 東北社会学会, 2000.
- 武田京子, 『老女はなぜ家族に殺されるのか』, ミネルヴァ書房, 1994.
- 田口寿子, 『わが国におけるMaternal Filicideの現状と防止策: 96例の分析から』, 『精神神経学雑誌』 109号, 2007.
- ダヤーン, ダニエル, エリユ・カット, 『メディア・イベント: 歴史をつくるメディア・セレモニー』, 青弓社(浅見克彦訳), 1996.
- 千葉徳爾, 『地域研究と民俗学: いわゆる『柳田民俗学』を超えるために』, 和歌森太郎編, 『日本民俗学講座5民俗学の方法』, 朝倉書店, 1976.
_____, 『女房と山の神』, 堺星図書, 1983.
- 朝鮮日報, 『介護疲れて韓国流アイドル一家崩壊の悲劇』, 日本語版2014年1月X日, 最終アクセス日2014年1月10日: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1403.html?ent_rank_news).
- 天童睦子編, 『育児言説の社会学: 家族・ジェンダー・再生産』, 世界思想社, 2016.
- 内閣府, 『平成28年版高齢社会白書: 全体版』(最終アクセス日2016年8月23日: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6/zenbun/pdf/1s1s_1.pdf).

- 内藤理恵子, 『サブカルチャー世代における他界観』, 『現代日本の葬送儀礼』, 岩田書院, 2013.
- 長尾真理子・川崎二三彦, 『『親子心中』の実態について: 2000年代に新聞報道された事例の分析』, 『子どもの虐待とネグレクト』 15巻2号, 2013.
- 根本治子, 『裁判事例にみる医療・福祉・司法の連携の必要性: 介護殺人事件の事例を素材にして』, 『法政論叢』 43巻2号, 日本法政学会, 2007.
- 萩原清子, 『あいまい概念としての「高齢者虐待」, とその対応: 虐待の定義と虐待の判断基準の再構築に向けて』, 『関東学院大学文学部紀要』 117号, 2009.
- 橋元良明, 『メディアと日本人: 変わりゆく日常』, 岩波新書, 2011.
- 羽根文, 『介護殺人・心中事件にみる家族介護の困難とジェンダー要因: 介護者が夫・息子の事例から』, 『家族社会学研究』, 18巻1号, 日本家族社会学会, 2006.
- 羽根一代・内藤直樹・岩佐光広編, 『メディアのフィールドワーク: アフリカとケータイの未来』, 北樹出版, 2012.
- バンゲ・モーリス, 『自死の日本史』, 筑摩書房(竹内信夫訳), 1986.
- ひびわれたまご, 『しつけで山に置き去りにされた7歳の子, よく家から閉め出された現在34の私』, 2016(最終アクセス日2016年8月30日: <http://shinoegg.hatenablog.com/entry/2016/05/30/033122>).
- 福島県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HP, 『うつ病と自殺について『高齢者の自殺の実態』』, 2010(2013年更新, 最終アクセス日2016年6月30日: <http://www.pref.fukushima.lg.jp/sec/21840a/utuujisatu-2.html>).
- 伏見香名子, 『しつけ?虐待?『小2置き去り』に英国も騒然』, 『日経ビジネス』, 2016年6月7日(最終アクセス日2016年7月5日: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110879/060600361/?rt=nocnt>).
- ベッヒドルフ・ウーテ, 『ドイツ語圏における民俗学的・文化学的メディア研究の方法』, 『常民文化』 38号(及川祥平, クリスチャン・ゲーラット訳), 成城大学常民文化研究会, 2015.
- ボイド・ダナ, 『つながりつばなしの日常を生きる: ソーシャルメディアが若者にもたらしたもの』, 草思社(野中モモ訳), 2014.
- 法務総合研究所, 『研究部報告50無差別殺傷犯に関する研究』, 法務総合研究所, 2013(最終アクセス日2016年7月30日: <http://www.moj.go.jp/content/000112398.pdf>).
- 法橋量, 『フォークロアとマスメディア: ドイツのタブロイド紙を材料として』, 『世間話研究』 10号, 2000.
- ボルテリ・アレックス, 『オーラルヒストリーとは何か』, 水声社(朴沙羅訳), 2016.
- 毎日新聞, 『探検録: 家族と同居の高齢者自殺/『迷惑をかけたくない』』, 地方版/秋田, 2010年10月8日付.
- 溝口史剛・滝沢琢巳ほか, 『パイロット4地域における.2011年の小児登録検証委員会報告: 検証から見えてきた本邦における小児死亡の死因究明における課題』, 『日本小児科学会雑誌』 120(3), 2016.
- 宮元預羽, 『介護殺人の行動パターン把握の試みⅡ: 103件の新聞記事をもとに』, 『大妻女子大学人間関係学部紀要』 16巻, 2014.
- 宮元預羽・三橋真人・永嶋真樹, 『介護殺人の行動パターン把握の試み: 37件の判決をもとに』, 『大妻女子大学人間関係学部紀要』 15巻, 2013.
- ムニョス・フランセスク, 『俗都市化: ありふれた景観とグローバルな場所』, 昭和堂(竹中克行・笹野益生訳), 2013.
- 村尾静二・筋内匡・久保正敏編, 『映像人類学: 人類学の新たな実践』, せりか書房, 2014.
- 森田昌宏・須賀良一・内藤明彦ほか, 『新潟県東頸城郡における老人自殺の実態』, 『社会精神医学』 9巻4号, 1986.
- 柳田國男, 『郷土科学といふこと』, 『青年と学問』, 岩波文庫(昭和3年, 日本青年館), 1976.
- _____, 『民間伝承論』, 『柳田國男全集』 28巻, ちくま文庫, 1990.
- 山中美由紀, 『日本社会と家族介護をめぐる殺人: 『死』の文化および家族観との関係性』, 同編, 『変貌するアジアの家族: 比較・文化・ジェンダー』, 昭和堂, 2004.
- 山藤章一郎, 『「私の手は母を殺めるためにあつたのか」と男は泣いた』, 小学館, 2007.
- 湯原悦子, 『介護殺人の現状から見出せる介護者支援の課題』, 『日本福祉大学社会福祉論集』 125号, 2011.
- _____, 『介護殺人事件から見出せる介護者支援の必要性』, 『日本福祉大学社会福祉論集』 134号, 2016.
- 林憲, 『精神徴候の通文化比較から見た親子心中』, 加藤正明ほか編, 『講座家族精神医学』 第2巻, 弘文堂, 1982.
- _____, 『文化精神医学からの贈り物: 台湾から日本へ』, 海鳴社, 2004.
- レーマン・アルブレヒト, 『意識分析: 民俗学の方法』, 『日本民俗学』 263号(及川祥平訳), 2010.
- _____, 『気分と雰囲気: 意識分析のコンテキストにおける記憶と語り及ぼす影響』, 『(仮)記憶研究の最前線』, ミネルヴァ書房, 近刊.

한국어

- 노상엽・양영화,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 보고서』, 카톨릭 대학교, 2003.
- 노컷뉴스, 『“대소변 못가린다” 친모 살해 패륜아 항소심도 “무기징역”(URL 및 접속 날짜는 생략)』, 2005.

노컷뉴스, 「오랜 간병 ‘자식 집될까’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3년형」(URL 및 접속 날짜는 생략), 2015.
정성국·이재란 외,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Korean Journal Legal Medicine』 38, 2014.

중국어

岩本通弥, 「以“民俗”为研究对象即为民俗学吗?—为什么民俗学疏离了“近代”」, 『文化遺産』 2(宮島琴美訳), 2008b.

영어 등 구문

- Abu-Lughod, Lila, “Television and the virtues of education,” Nicholas S. Hopkins and Kirsten Westergaard eds., *Directions of change in rural Egypt*,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1998.
- _____, “The Object of Soap Opera: Television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Modernity” Askew, Kelly and Richard R.Wilk eds., *The Anthropology of Media*, Blackwell, 2006.
- Bausinger, Hermann, *Konzepte der Gegenwartsvolkkunde*, *Österreichische Zeitschrift für Volkskunde*, 87, 1984.
- Bird, S. Elizabeth and Robert W.Dardenne, “Myth, Chronicle, and Story: Exploring the Narrative Qualities of News”, 1988.
- Bird, S. Elizabeth, *For Enquiring Minds: A Cultural Study of Supermarket Tabloids*,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2.
- _____, *The Audience in Everyday Life: Living in a Media World*, Routledge, 2003.
- _____, “The Anthropology of News and Journalism: Why Now?”, Bird, S. Elizabeth(ed.), *The anthropology of news & journalism: global perspectives*,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 Carey, James M.(ed), *Media, Myths and Narratives, Television and the Press*, Sage, 1988.
- Carey, James M.,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Routledge, 1989.
- Coman, Mihai and Eric W. Rothenbuhler, “The Promise of Media Anthropology” Rothenbuhler, Eric W. and Mihai Coman, *Media Anthropology*, Sage Publications, 2005.
- Cosslett, Rhiannon Lucy, “We need more good news stories, like Yamato Tanooka’s rescue”, *Friday 3 June 2016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jun/03/more-good-news-needed-yamato-tanooka-rescue-japan> : 최종열람 2016년7월31일)
- Dahlgren, Peter,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Citizenship, Democracy and the Media*. Sage, 1995.
- Dégh, Linda, *American Folklore and the Mass Media*, Indiana Univ Press, 1994.
- Ginsburg, Faye, Abu-Lughod, Lila and Larkin, Brian, “Introduction”, Ginsburg, Faye, Abu-Lughod, Lila and Larkin, Brian.eds., *Media Worlds: Anthropology on New Terrain*,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Kelly, Michaela, *Contemporary Motherhood in Northern Japan: An Ethnography Applying Socio Capital and Network*(동경대학 종합문화연구과 초역문화과학 전공·문화인류학 코스 박사논문), 2016.
- Lehmann, Arbrechd, *Reden über Erfahrung. Kulturwissenschaftliche Bewusstseinsanalyse des Erzählens*, Reimer, 2007.
- Löfgren, Orvar, “When is small beautiful? The Transformations of Swedish Ethnology”, Máiréad Nic Craith, Ullrich Kockel and Reinhard Johler eds., *Everyday Culture in Europe: Approaches and Methodologies*, Routledge, 2008.
- Noyes, Dorothy, “Humble Theory”,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45(1), 2008.
- OECD,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https://www.oecd.org/els/soc/49263450.pdf> : 최종열람 2016년7월1일).
- Renteln, Alison Dundes, “Folklore: Legal and Constitutional Power,” Regina F.Bendix and Galit Hasan-Rokem, *A Companion to Folklore*, Blackwell, 2012.
- Rothenbuhler, Eric W., *Ritual communication : from everyday conversation to mediated ceremony*, Sage, 1998.
- Rothenbuhler, Eric W. and Mihai Coman, *Media Anthropology*, Sage Publications, 2005.
- Silverstone, Roger,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Routledge, 1994.

* 이 글은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 중 한일 친자동반자살의 기본사항을 소개·설명한 부분과 표현이 중복되는 곳이 다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